

2021 제 9 호

고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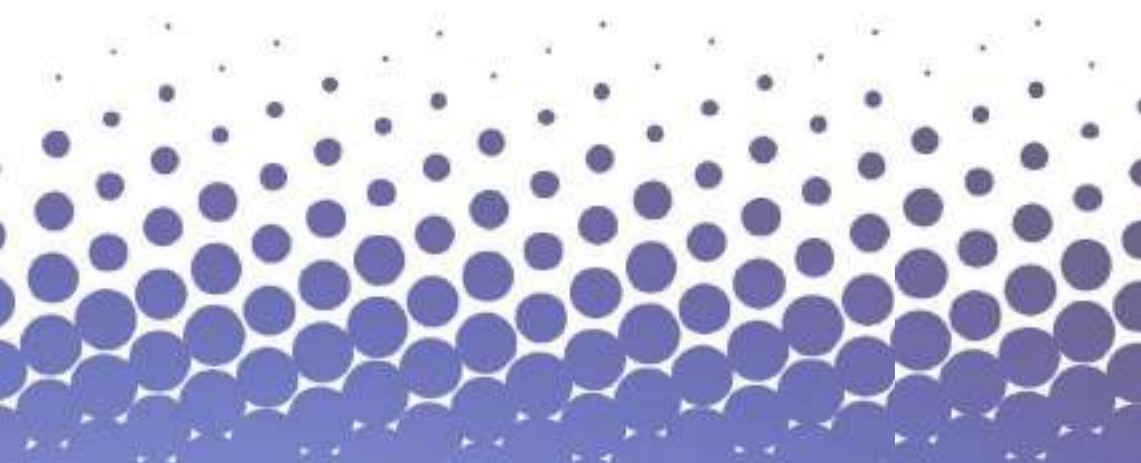
江原道高城文化院



江原道高城文化院



금강산과 동해가 만나는 고성



차 례



발간사

..... 10

축간사

..... 14

부록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 18

1 특별기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만들터 39
【함형완 고성군의회위원장】

산림을 고성 발전의 디딤돌로 45
【이양수 국회의원】

바로 알기와 우리의 마음가짐 49
【백두용 강원 고성경찰서장】

우리집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55
【최식봉 고성소방서장】

농업인과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59
【임권택 NH농협고성군지부장】

2 고성문화원 활동

오늘부터 강철할매 65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73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 77

3 기획특집

우리 고성을 빛낸 얼굴들 85

고성·속초 산불 2돌을 맞으면서 89

4 오피니언칼럼

몽골 대초원	97
【최기종 문화관광콘텐츠연구원장】	
재주와 덕(德)	105
【권성준 강원고성갈래길본부 대표이사】	
토종 약초 송지호 해방풍(海防風)예찬	111
【신준수 해방풍 보존회원】	

5 향토문단

건봉사(乾鳳寺)이야기【최점석 문화관광해설사】	123
엄채란 아리아리예술단장을 만나다	127
고성의 명물! হলি 황태덕장 정원씨	131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	135

6 향토사 조명

금강산(金剛山)사찰(寺刹)들	141
【이선국 고성문화원 감사】	

7 향토 문화·예술 자상 갤러리

사진 외 10여개 단체	158
--------------------	-----

8 문화원 소개 및 회원가입

고성문화원 연혁	168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 문화원장 소개	170
가입방법	175

2021. 제9호 고성문화



발간사



江原道高城文化院

발간사



향토문화는 고성군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문화의 초석으로서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그 가치를 고양시키는 일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청정지역의 보고로서 북쪽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금강산을 안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으로 역사적인 인물은 물론 뛰어난 문화 예술을 꽃피우던 고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성문화원은 그간 수많은 사료 발굴과 함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고성군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웠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중대한 결정을 통해 제3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원 부설 고성향토사연구소에서 관내에 산재에 있는 “금석문” 조사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정리 책자 발행과, 2021년 제3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하여 “건봉사의 역사와 사명당의 전통”이란 주제의 발표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예를 비롯, 20여 개의 문화예술 활동의 수강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KBS1 TV 6시내고향에 “오늘부터 강철할매”라는 프로그램도 소개되어 생애전환기를 준비하는 연령대에게 새로운 문화 활동을 제시,

특별한 도전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성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갖가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9호 “高城文化” 발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함명준 고성군수, 함형완 고성군의회의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자 발간에 옥고를 보내주신 각계인사와 관내·외 문화예술 인사, 그리고 고성문화원 회원님들, 그간 편집에 힘을 기울여 주신 최선호 고성향토연구소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문화원장 주기창



2021. 제9호 고성문화



축간사



江原道高城文化院



축간사



올해로 18년째 맞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록 전승하는「高城文化」제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애쓰시는 고성문화원 주기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강산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지역은 세계 유일 분단 지방자치단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郡으로, 고성문화지 발간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계화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문화 분야 핵심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며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화원의 향토사료 수집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기록 및 자원발굴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향토사를 후세에 이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 및 군민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 나아가 애향심 고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는 “(재)고성문화재단” 창립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고, 천년고찰 건봉사에 대한 “건봉사지 사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왕곡마을, 고성 육송정 홍교, 합축교 보수 등 문화재 가치 재발견 및 복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무형문화재(고성어로요, 각자장) 지원, 향교 활용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 행사 지원을 통한 문화가치를 재창출하여 문화·관광·체험의 관광 자원화에 앞장서는 등 미래 가치창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온 군민이 코로나 19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길 바라며 다시 한번「高城文化」제9호 발간을 축하드리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과거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우리 군민의 향토·문화 의식 향상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성군수 **함명준**



2021. 제9호 고성문화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江原道高城文化院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고성문화원 정기 이사회 개최 / 2020. 5. 08】



【2020년도 고성문화원 임시총회 / 2020. 5. 29】



【고성문화원 부설 고성향토사 연구소 발족 / 2020. 6. 16】



【고성문화원 전통민요 간담회 / 2020. 6. 19】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 / 2020. 8. 15】



【제39회 수성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 2021. 7. 21】



【제3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 2021. 9. 15~16】



【제3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 2021. 9. 15~16】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제3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전통혼례 / 2021. 9. 15】



【제3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고성군민노래자랑 / 2021. 9. 15~16】



【고성향토사 발표 참가기념사진 / 2021. 6. 24】



【문화원 회원 관내 문화탐방 / 2021. 6. 30】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제11회 동구리경창대회 아리아리예술단 장려상 수상 / 2021. 11. 10】



【제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결산총회 / 2021. 11. 12】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개최 / 2021. 11. 25】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강원도문화원연합회CI 공개 / 2021. 11. 25】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 아리아리예술단 공연 / 2021. 11. 25】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탐방(강릉 참소리박물관) / 2021. 12. 01】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탐방(평창 발왕산 스카이워크) / 2021. 12. 01】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탐방(강릉 참소리박물관) / 2021. 12. 01】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탐방(강릉 참소리박물관) / 2021. 12. 01】



【제23회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대회 / 2021. 12. 04】



【제23회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대회 / 2021. 12. 04】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대회-아리아리예술단 공연 / 2021. 12. 04】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제23회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대회 / 2021. 12. 04】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 개회식 / 2021. 12. 08】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왕곡마을 / 2021. 12. 08】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왕곡마을 / 2021. 12. 08】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건봉사 / 2021. 12. 08】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건봉사 / 2021. 12. 08】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밀리터리체험 / 2021. 12. 08】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밀리터리체험 / 2021. 12. 08】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2021. 12. 09】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2021. 12. 09】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2021. 12. 09】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2021. 12. 09】

2021. 제9호 고성문화



특별기고문



江原道高城文化院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만들터!

고성군의회 의장 / 함형완

신뢰와 공감, 민의의 대변자

신뢰 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기치(旗幟)아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제8대 후반기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최근 우리 의회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을 지켜보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군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두 차례 심사·처리하였고,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다.

1.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 및 예산심사기능 강화

“**조례안 심의 54건(의원발의 조례 10건 포함), 예산안 심사 5회**”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제8대 후반기 1년 동안 제31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등 총 10회 78일간의 회기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54건과 건의안 2건, 자유발언 7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의원들은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 등 주민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다수 발의함으로써 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예산안 심사는 2020년 2회, 3회 및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1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5회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2021년도 본예산은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에 초점을 두고 총 3,80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따른 시정 · 건의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현안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함으로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적 수행에는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의정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성군 주요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 요구 14건, 건의 281건, 제안 24건 등 총 319건의 행정행태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를 넘어선 정책 감사를 시행하였다.

3.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소통하는 의회 구현

“현지 시찰 2회 15개소, 집행부와 의 간담회 12회”

제8대 후반기에도 고성군의회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왔다.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사항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기조로 활동하여 다양한 해결책과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지 시찰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지난해 하반기 8개소, 금년도 상반기 7개소 총 15개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추진하였다.

그중 금년도 주요 사업장현지 시찰 현황을 보면 “농어촌공사



【제1차 예결특위 모습들】



【제327 정례회 광경】

설악연수원 건립사업”, “고성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타라 소테라피, 뽀로로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진부령미술관 운영현황”, “체육회 및 종합운동장 운영현황”, “현내면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DMZ문화예술 삼매경 아트호텔 사업”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 및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위해 매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견제와 균형’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힘써왔다. 앞으로도 고성군의회는 ‘의회의 의정활동은 주민이 만들어가고, 의회는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의사결정 시 주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산림을 고성 발전의 디딤돌로!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인제) / 이양수

고성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북쪽에는 금강산, 서쪽과 남쪽에는 설악산 등 높고 험준한 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쪽에는 드넓은 동해가 있고 분단 후에는 북쪽에 휴전선이 그어져 육지 위의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림은 고성군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삶 그 자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기도 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뤄진 만큼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개발할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진부령을 넘어 서울에 가는 데만 장장 6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였다.

그런 산림이 이제는 우리 고성의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 개최되는 ‘2022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의 주 개최지가 고성이며, 올해 5월 전국 제1호 국가 숲길로 진부령을 기점으로 하는 ‘백두대간 트레일’이 지정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도 조성됐다.

산림산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과 치유기능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가 글로벌 화두가 된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산림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치산녹화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이제는 산림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적 활용을 시작할 때이다.

2022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고성을 주 개최지로 하여 전 세계인들과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산림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정부 승인 국제박람회이다.

내년 5월부터 고성을 비롯해 속초·인제·양양에서 33일간 진행되며,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찾는다”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총 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엑스포 개최에 따라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4,700억 원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5,06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고성에서 개최되는 만큼 고성이 대한민국 산림 분야의 중심지로 부상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고성 진부령을 기점으로 하는 백두대간트레일이 지리산 둘레길, DMZ 편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과 함께 제1호 국가 숲길로 선정됐다. 국가 숲길은 산림 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곳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백두대간 트레일이 국가 숲길로 선정되면서 고성은 국가대표 숲길을 보유한 지역이 됐다.



국가 숲길은 산림청이 주도 하에 안내소, 숲길 등산지도사, 유지 관리 등 숲길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숲길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등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됨에 따라 향후 숲 길을 찾는 이용객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지난 5년 동안 DMZ트레일, 유아숲체험원,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성에는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추가로 조성될 여지가 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산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더욱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향후 고성이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이 과거에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찬란한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성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알기와 우리의 마음가짐

고성경찰서장(58대) / 백두용

"민식이법과 스토킹 처벌법"

제76 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지난 10월 21일은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이 두 가지 법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민식이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생겨난 이 법은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각종 불편으로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고 불쾌한 감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팔뚝이 부러지는 등 8주 진단이 나온 이 사고에 대해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자전거 속도가 다소 빨라서 사고를 막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민식이법을 위반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는 민식이법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고, 운전자에게 불리하라고 만든 법은 맞지만, 그 취지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또 어린이의 경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2021년 4월 17일 전면 실시) 정책도 운전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감이 있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와 같다고 하겠다. 민식이법은 결국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짚어 보겠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통과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또한 민식이법처럼 처벌 수위가 높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이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남녀 사이나 애정, 집착, 관심 등에 한정하지 않으며, 이웃 층간소음 항의(협박성 메모를 붙이는 경우)도 일시적이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이 자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채권 추심을 하는 채권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대로 이런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 번은 B라는 사람이 약속 날짜가 지나서도 돈을 갚지 않자 조바심 이난 채권자 A는 B가 집에 있는 저녁 시간대 여러 차례 찾아가 벨을 누르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B는 이런 행위가 계속돼 불안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리상 이런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악성 채권자의 행위 때문에 채무자가 스토킹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인(私人)간 분쟁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셈이 돼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장의 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해도 사장이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다"고 신고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민식이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은 법 적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뒤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 만큼 국민 모두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고성경찰서 또한 민식이법이나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법의 입법 취지와 일맥상통하고, 고성지역의 특성과 관련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찰 활동, 즉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고성지역은 어린이를 비롯,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약자에 해당

하므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성경찰서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캠페인 및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 봄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

모두 고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백두용 프로필

- '13. 강원청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14. 강원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 '15. 강원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 '20. 강원청 치안지도관
- '20. 강원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21. 강원청 고성경찰서장







우리집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고성소방서장 / 최식봉

우리집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 지고 따뜻해 지는 말이
다. 집은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하루에 지친
피로를 해소하는 안식처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한순간에 보금자리와 행복한 추억을 화마에 빼앗기고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전체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
하는 화재 비율은 18%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원인미상 다음으로 부주의, 방화, 전기
적요인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만 일찍 화재를 발견하
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서둘러 대피를 할 수 있다면 주택화
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고성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약가구(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
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
되며,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가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소화기는 실제로 초기화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경보기 알림을 듣고 소화기로 불을 직접 끈다면 소방차가 출동한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을 모르는 가정도 많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해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홍보와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민들 모두 주택용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훌륭한 소방관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NH농협고성군 지부장 / 임권택

"농촌지역 영농인력 지원을 확대해
일손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인력을 중개하고,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해피해 농업인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마다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 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 폭설, 대형 산불 등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협은 재해 발생 때마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예산 등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취약 농업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최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돌보는 일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농협은 ‘농업인행복콜센터’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돌봄대상자와 돌봄 도우미를 전산에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한점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맞춤형 노인 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로 도농교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자체장, 기업 CEO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활발한 도농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팜스테이 마을에도 도시민이 방문하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어린이와 주부 등 도농 협동체험단 참여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
농촌 환경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농협은 아름다운 농촌 경관 유지와 농업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도색, 노후주택 개·보수, 꽃길 조성 등 농협과 농촌 마을이 함께 마을 가꾸기를 실시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농촌 마을을 발굴·전파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무료법률구조 및 농업인 소비자 보호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무료법률구조와 소비자 보호 사업은 농업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농업인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통해 소비자 보호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범 농협 사내 변호사 등으로 법률·세무 자문봉사단을 운영하여 법률 상담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농협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 나눔 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드렸으며, ‘농촌현장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촌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농업발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 농협(중앙회, 농축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매년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실익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공익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여성·문화환경·체육 증진 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 나눔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소외된 이웃에 농협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역 문화 및 예술행사 지원 등 농협의 사회적 역할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지난 60년의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농업인과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잊지 않고,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제9호 고성문화



고성문화원 활동



江原道高城文化院





- 평균연령 60세 G-할머니의 성공과 실패의 기록
- "다들 서핑 정도는 하고 사는 거잖니"
- 고성군만의 특별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익사이팅 스포츠
- 서핑, 스킨스쿠버, 라이딩, 트레킹에 도전하다.

#1 할매니얼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말로 젊은 세대에 스며든 옛날 감성과 트렌드를 말합니다. 최근 73세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끈대 같지 않은 할머니를 뜻하는 K-할머니에 젊은 세대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옛날 엄마아빠가 뭐라 하든 신나게 놀게 해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 다 각설하고,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잘 놀며 잘 사는 것,
미래의 내가 잘 놀고 잘 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2 화진포, 송지호 등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석호 주변 대형 둘레길, 해파랑길 45~50코스 총 길이 58Km 자전거길, 서쪽으로 대한민국 5대 명산 설악산과 향로봉, 동쪽으로 청정 바다를 품고 있는 천혜의 환경 강원도 고성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레포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아온 할머니가 있죠.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온전히 감내해야 했던 우리 지역 여성들은 어느새 늘어난 나이와 흰머리가 야속할 새도 없이 휴양과 레저 스포츠 활동 관광지로 변모하는 삶의 터전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런 것도 하던데 하면서 말이죠.

지금 “강원도 고성” 하면 떠오르는 것인데도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모르는 것 아마 이 스포츠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3 익스트림 스포츠는 2030세대의 고유문화처럼 여겨집니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가뜩이나 스포츠 문화 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령 여성이 접할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하지만 이런 인식보다 넘어서기 어려웠던 건 스스로가 가진

【서평객을 보고 “10년만 젊어도”라는 할머니의 혼잣말로부터 시작된 오늘부터강철할매】

10년만 젊어도!



편견일지 모릅니다. 민망해서, 남사스러워서, 이 나이가 되니 고상한 취미를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노년의 삶은 응당 그런 것이라 포기했던 많은 것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뒷걸음치는 것이 미덕인 사회를 살아온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60대 여성의 흔하지 않은 상징적인 활동으로 서핑을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최선을 다해 나이 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성별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무엇’을 찾는 일이며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지역문화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4 서핑은커녕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바닷물 속에 발 담근 것도 까마득한 분들이 낯선 서핑 슈트를 입고, 50년 전 기억을 되살려 자전거에 오르기까지 대단한 의지나 다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다는 즐거운 마음이면 가능한 일이죠.

어렸을 때 바다에서 판자를 타고 놀았던 기억을 되살린 70세 병남씨, 높은 산은 다 등반할 만큼 몸도 마음도 청춘인 67세 정희씨, 학교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강철할매의 무대가 된 봉수대 해수욕장】



다니기 위해 배웠던 자전거를 50년 만에 다시 타게 된 66세 영희씨, 하와이에서 비키니를 입고 서핑하는 꿈이 생긴 64세 명희씨, 색소폰도 서핑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넘치는 61세 춘남씨, 고성 구석구석을 안내해 준 61세 정인씨, 물 공포증을 이겨내며 끝까지 도전한 60세 미숙씨, 추석에 온 가족과 함께 서핑장을 찾은 명기씨 등...

14명 참여자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 **[오늘부터 강철할매]** 참여 이유는 같습니다. 그 언젠가 고민해봤던 마음 속 깊이 묻어둔 “해보고 싶었던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5 늙었기에 놀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늙게 된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은 적은 없습니다. 몇십 년 만에 들어간 바닷속에서 아이처럼 웃는 얼굴을 보니 친구들과 까르르 웃고 있는 여고생 복동씨가, 엄마아빠 손을 잡고 바다로 소풍 온 어린



【서핑, 패들보드, 카약, (상단부터 시계방향)】

복희씨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이기 전에 여자였고, 여자이기 전에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였던 그 당연한 사실을 오랜만에 기억나게 했죠. 잠깐씩 쉬는 시간이면 서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테이크오프(Take off: 보드에서 일어나는 기술)를 잘하려면 어느 근육이 필요할지, 왜 안되는지, 어떤 파도가 적당한지, 힘 빠지 않는 요령 등 다른 일은 잊고 현재 마주한 서핑에만 몰두하는 이 시간 동안은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상하지만은 않은 새로운 문화 활동은 SNS를 통해,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누구든, 언제든지, 어떻게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6 고성은 여느 지방 도시가 그럴듯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착민이 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민 역시 은퇴 후 여생을 보내러 오는 경우가 많죠. 시대의 흐름을 억지로 막기보단 한 부분 순응하며 현명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강철할매]는 우리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활동으로서



【물속에선 누구나 어린아이가 되는 법】

2030 여행객이 주를 이루며 잠깐 즐기고 가는 고성의 단순한 레포츠 활동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스포츠 활동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은 분명 “우리”여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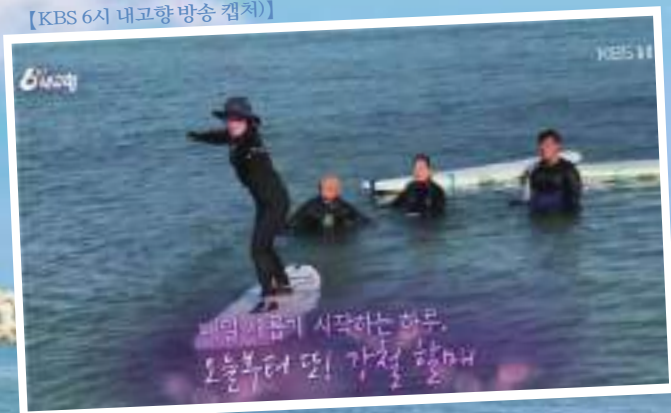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빌어 여행을 보내기 위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로서 MZ세대에게 단순한 “여행지” 보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살고 계신 “고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의 길이 있을 것이라 믿어요.

이 길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응원하겠습니다.

#7 요즘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이라는 말인데요, 더 이상 머리색에 따라 실버라고 불리는 세대가 아닌 오팔이라는 보석처럼 다채로운 빛과 색을 내는 여러분의 여행이 아닌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서핑할까요?

【KBS 6시 내고향 방송 캡처】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뚝 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뚝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 마크 트웨인 (Mark Twain) -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고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치뤘!

강원도문화원 연합회(회장 류종수)와 고성문화원(원장 주기창)이 주최·주관하는『2021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이 지난 11월 25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원문화 대축전은 강원문화의 계승과 지방문화원 사업성과 공유와 문화 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를 두손愛! 강원을 품안愛!” 라는 슬로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에서 700여 명의 공연단과 회원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에서 류종수 강원도문화원 연합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함명준 고성군수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문화유공자 포상(문화체육부 장관(2), 강원도지사(18), 강원도의회 의장(18), 한국문화원연합회장(5), 지방문화원 장기근속(2))의 포상이 있었으며,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공연팀 8개 팀의 공연과 특별 초청공연 및 행사 수시로 경품권 뽑기 행사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고성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한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 전경】

김명기 강사가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고, 박수정 강사가 강원도 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고성문화원의 최윤정 과장이 25년 이상 문화원 근무자로 한국문화원연합회장으로부터 상패와 행운의 열쇠를 영광스럽게 받았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고성문화원의 아리아리 예술단의 “고고장구” 공연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축하공연에 이어, 강릉문화원 외 7개 지역 팀의 다채로운 향토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대회장의 인사가 끝난 후 강원도연합회의 새로운 CI 오픈링 퍼포먼스가 18개 시군의 문화원장들이 단상에 올라와 함께 발표커팅을 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종이비행기를 날려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고성문화원 소속 향토사연구소의 이야기들「冊, 문화를 잇고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고성지역의 옛 지도와 서예·미술·사진·도서·영상물 등이 기획전시 되었으며, 즐거운 문화생활이란 주제로 설악권 문화연합회인 속초문화원에서 속초 골목길(어반스케치), 양구의 자연과 사람들(서양화), 인제 목공예-반달이·경상·서류함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 시상식】



양양의 산하(수채화)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향토문화 공연으로 강릉의 솔향기타(오래와 통기타), 동해 키움 팬폴랏 앙상블, 태백 사랑의 하모니(하모니카), 삼척 樂(모듬북), 홍천 댄사시모(사교댄스), 횡성 한국무용단(부채춤), 철원 정태규 색소폰 연주, 화천 전통예술팀(태평소와 피리, 장구)이 있었으며, 특별 초청공연은 아페라(소프라노 남수정, 소리꾼 최진실), 가수 위일청의 공연으로 마감하였다.

행사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위하여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발열(37.5℃) 등 이상 발생시는 행사장 입장을 불가 시켰으며, 참가팀별 체온측정 및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한 건의 불상자 발생도 없이 순조롭게 끝마쳤다. (고성문화원 제공)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 행사모습】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

고성향토사연구소

두능 마친 고3 누험생들의 지역 둘러보기

올해 열두 번째 내 고장 역사 문화 바로 알기 사업이 시행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고교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 이해에 대한 강연과 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채호 선생의『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서두에「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라고 역사를 정의하고 있다.

【2021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 개최-고성중고등학교】



이처럼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역사는 역사학자들만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보다 밝은 미래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찾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 넓은 사회와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흔히 집안의 내력도 잘 모르면서 그 집안에 대해 자부심 가질 수 없고 지역의 역사를 모르면서 고성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없다. 한국사를 모르면서 한국인을 내세우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2021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건봉사】



경우라고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정체성이 찾는 일은 존재감을 되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세계사를 통해 한국사의 위상을 찾고, 한국사를 통해 우리 지역사의 위치를 찾고, 우리 지역사의 재조명을 통해 자신을 되찾는 일이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뿌리는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지난 역사를 되찾고 올바르게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현재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가늠하고 발전하는 일이다.



【2021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밀리터리체험】

【2021 내 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대회-왕곡마을】



정보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상고시대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질곡의 현대사와 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찾는 일을 학교 수업 과정에만 맡길 수도 없다. 그간 고성문화원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역사 문화 바로 알기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1 내고장 바로알기 대회 개최-밀리터리체험】





2021. 제9호 고성문화



기획특집



江原道高城文化院





고성을 빛낸 얼굴들!

"고성출신 중앙정부 1급 실장 2명 배출"

지난 8월13일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 1급 실장 2명이 동시에 임명을 받아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죽왕면 삼포1리(일명 순포리)의 어명소(56, 사진 국토부)씨와, 토성면 교암리가 고향인 김성호(54, 사진 행안부)씨인데 이들은 2명다 고성 동광중학교 동문들로 알려졌다.

어명소씨는 종합교통정책관에서 교통물류실장으로 승진발령되었으며, 행정안전부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본부 재난관리 실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어명소 실장은 고성관내에 있는 동광중학교와 속초고등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다. 1984년 춘천시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면서 주경야독 1993년 행정고시(제37회)합격을 하였고, 그 뒤 국토교통부에서 일을 하게되어 물류산업과장, 토지정책과장, 원주지방국도 관리과장, 대변인, 행정정책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1월부터 종합교통 정책관으로 일해왔다.



【김성호】



【어명소】

김성호 실장은 동광중학교를 거쳐 강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

하여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 선거의뢰과장,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대변인등을 역임하고 2019년 2월부터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해왔다. 이들 2명은 고성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며, 어명소 실장과 김성호 실장은 특히 고성관내 소재에 있는 동광중학교 동문으로 어 실장이 3년 선배로 알려졌다.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3월 개교한 동해안 최북단 고성의 동광중학교는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재경 고성군민회는 “우리 고성군 출신 공직자들이 나란히 중앙정부 주요 부처의 1급실장으로 영전하여 너무 기쁘다.”며 나라의 기둥이 되고, 고향을 위하여 큰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五

五

五





고성·속초산불 2돌을 맞으면서

고성문화원이사 / 김철수

“**암울했던 그때를 회고하고 현재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태초부터 인류 역사상 물과 불은 절대적인 관계라 하겠다.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 고통, 심지어는 인류 문명까지 흔적도 없이 파괴, 말살시키기도 한다. 인간이 물과 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왔기에 인류 문명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오늘에 이르렀다.

영동지역은 양간지풍으로 유명하다. 봄이면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이 빈번한 산불위험지역이다.

한전의 노후화된 고압케이블 선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불꽃은 원암리 주유소 부근에서 시작하여 5시간 만에 원암리, 성천리, 인흥1~3리, 용촌1~2리, 봉포리 등 8개 마을과 속초시 장사동 일대를 집어삼키는 대참사를 내고 말았다.



【발화 원인인 한전 전신주 개폐기 스파크】



【발화 지점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산불】

■ 피해 상황(2019년 4월 4일)

- 이 재 민 : 용촌1리 등 8개 마을 506세대 1,190명
- 피해내역 : 주택 및 부속사 529동, 산림 930헥타르
- 피 해 액 : 2,071억 원
- 사 망 : 1명
- 가 축 : 소 8두, 닭 1,000수 등
- 유 실 수 : 수천 그루(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이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대형 산불로 기록되었으며 불행 중 다행한 것은 화재 발생 시각이 밤 9시나 10시 무렵처럼 늦은 시간이 아닌 저녁 6시경이었기에 그나마 인명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이재민은 마을회관이나 체육관, 공공 시설물에 분산 유치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발 빠른 지원은(급식 조달, 지원물품 분배 등)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 또한 전 국민의 성금과 정부지원금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를 앞당길 수가 있었으며 낙담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산불로 폐허가 된 현장 / 속초시 장천마을】



【산불로 완전히 파괴된 삶의 터전 / 봉포리】

2019년 4월 4일 산불 다음날부터 고성산불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재민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갑론을박 의견충돌로 3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노장현씨를 추대하고 각 마을 대표를 위원으로 하여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여 비대위를 발족하였으나 계속되는 의견충돌로 발전 없이 진행되어 갔다. 그러던 가운데 여러 번 조직개선을 걸쳐 한전 협상을 이어나갔고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손해사정 이후 한전, 행안부, 강원도, 고성군, 각 부처를대표하는 변호사를 6명을 선정하여 손해배상 협상에 들어가서 9차례의 협상에서 주택 이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60%, 임야는 40%로 협상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9차에서는 2019년 12월30일오후 2시에 시작 12월 31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힘들게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하여 이재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줄 기대하였으나 행안부가 정부지원금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함으로 인해 2020년 한해를 행안부, 한전 강원도와 비대위 간의 지루한 싸움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국가 감사원에 협조문을 보내게 되었고 감사원은 법제처에 질의협조를 받아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며 행안부는 사회협약체를 구성하라고 하여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2020년 10월에 구성) 그 해 12월 17일에 결론을 내리기를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에 반하여 행안부는 또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이재민을 또다시 울리는 행태를 보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한전에서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2021년 3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었고 2021년 4월 22일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법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 현재 복구현황

· 주택 및 부속사(2021년 4월 22일 현재)

구분	복구 대상	복구추진				주택 매입	진행
		계	설계	공사	준공		
계	529	310	32	35	225	18	58.6%
주 택	306	196	5	23	150	18	54%
부속 사	223	114	27	12	75	0	51.1%

- 산림 - 임 목 벌채 : 858헥타르 중 519헥타르 완료(60.5%)
 - ※ 잔여 면적 : 339헥타르 (소송 대비 증거보전을 위한 사유림 벌채 부동의)
 - 복구조림(완료) : 305헥타르
 - 산사태 피해복구(완료) : 7.2헥타르

■ 기타지원

- 피해 소상공인 간접지원(응자) : 156개 업체 23.8백만 원
- 산불피해 이재민 공동체 임대주택 건립 LH공사
 - 토성면 인흥리 205 / 21억 원 / 지상 4층 744㎡(225.5평), 1동 (15호)
-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설치
 - 임대주택 : 95세대 238명 거주 → 72세대 190명 거주 중
 - 조립주택 : 240세대(275동) 551명 → 24세대(27동) 46명 거주 중
- 산불피해 마을 지적 재조사 : 463필지(226,000㎡)
 - 성천, 용촌, 원암, 인흥2지구 경계 협의 완료 / 인흥1지구 경계 협의 중

■ 정부지원금 구상권 청구 동향

- 정부지원금 (300억 원)의 한전 대상 구상권 청구 방침에 따라 주민 정부, 한전 간 갈등 (구상권 청구 방침 결정 : 행정안전부, 소송 수행 : 강원도)

주민입장	※구상권 청구 철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한전 피해 보상 요구 (1)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지연(2~3년) (2) 구상권 청구 시 기 지급된 정부 보상금을 제한 금액만 보상 한다는 한전의 입장에 따라 보상액 축소 (3) 특심위가 의결한 보상 요율을 (60%) 초과 수령한 주민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발생 *특심위(6인) : 구상권 청구 합의를 위한 행안부 등의 하에 사외 협의체 구성(변호사선임)하여 1달여 심의 결론은 정부 구상권 청구는 불가하다 6인 전원 합의하였으나 이것도 부정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정부입장	구상권 청구(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청구)
한전입장	(1) 특심위가 결정한 손해사정 금액의 60%만 지급 (2) 구상권 청구 시 특심위 결정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만 지원

■ 구상권 청구 진행 상황

- 2021년 2월 : 정부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道→한전)
- 2021년 3월 5일 :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한전→대한민국 외 3)
- 2021년 4월 21일 : 구상금 청구 소송(반소) (道→한전)
- 2021년 4월 22일 :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법원)

이상으로 필자는 비대위 부위원장, 위원장, 고문을 거치면서 이재민의 실상과 현재 복구현황을 아는 대로 기록하게 되었다.

2021. 제9호 고성문화



오피니언 칼럼



江原道高城文化院

최기종의 주요약력

- 고성 죽왕 인정리 출생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미래학자
- 대한민국 제1호문인작사가 등단
- 문학세계 '시' 등단, 스토리문학 '수필' 등단
-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춘천시 홍보대사
- 문화관광콘텐츠연구원 원장

【대표곡】

소양강 봄바람(금잔디), 동해 울릉도(윤수현), 부산항(홍원빈)

【주요저서】

어머니와 인절미(제1시집), 갯배(제2시집), 소양강의 봄(제3시집), 관광학개론, 관광매너 서비스, 문화관광, 관광자원해설 외 30권



몽골대초원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최기종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의 하나가 여행하는 일이다." 7월 초순, 나는 여행에 필요한 소지품과 겨울 점퍼, 그리고 몇 개의 긴팔 셔츠를 챙겨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Mongolia'로 향한다. 서울에서 몽골까지는 항공기로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몽골'은 온 나라가 푸른 잔디로 덮여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초원 위에는 유목민의 전통가옥이 드문드문 보이고, 들판에는 가축과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첫날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Ulaanbaator'에서 1박 한다. 도시의 규모나 외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도시 정도로서, 수도 치고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도로에는 넓은 전차가 사람을 가득 태우고 질주하고, 거리엔 행색이 초라한 시민들이 눈에 띈다.

해발 1천350m의 고원 위를 흐르는 토라 강가에 위치한 울란바토르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울란바토르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수헤바토르'를 기념하여 세운 이름이다. 예부터 이 도시는 물과 풀이 풍부해 유목과 수렵에 적합한 곳이어서, 일찍부터 수도로서 번영해 왔다.

우리는 여장을 풀고 시내를 관광한다. 먼저 세계 3대 공룡박물관 중의 하나인 '자연사박물관'에서 거대한 공룡과 공룡화석, 몽골 각지에서 수집된 희귀한 자료 2만여 점의 전시품을 둘러본다. 박물관 치고는 좀 허술해 보이지만, 내부를 짝 채운 듯한 거대한 공룡이 방문객을 감탄시킨다. 몽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은 '간단사원'이다. 19세기 중엽에 건축한 것이다. 과거 공산정권 하에서도 유일하게 종교 활동을 보장받았던 매력적인 사원이다.

후타크 8세의 겨울궁전으로 유명한 ‘복트칸궁전박물관’은 왕의 거처와 7개의 사원, 왕족의 유품 및 진기한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한옥을 닮은 박물관 기와지붕은 왠지 낯설지가 않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는 어둡고 침침하다. 거리를 환하게 밝혀야 할 가로등, 쇼윈도의 화려한 조명, 밤거리를 활보하는 젊음의 열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인적이 끊긴 도심지는 썰렁하면서 활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테렐지Terelji로 향한다. 도심지를 벗어나자 버스는 비포장도로와 푸른 벌판을 넘나들면서 질주하기 시작한다. 정해진 도로가 따로 없다. 푸른 초원은 끝없이 이어져 있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동 중에 버스에서 내려 초원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유목민의 전통가옥인 ‘게르ger’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유목민과 잠시 어울리기도 한다. 유목민은 통상 게르에 거주하면서 양고기와 말 유馬乳로 만든 술로 식생활을 한다.

테렐지는 울란바토르 북동쪽 78km 지점에 위치한 몽골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바위산과 푸른 초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푸른 초원에는 국화과에 속하는 한국 특산 식물인 솜다리과와 비슷한 에델바이스와 각종 야생화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마치 꽃동산에 들어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테렐지에 도착해서 유목민의 전통가옥인 ‘게르’에서 여장을 푼다.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천막으로 지은 게르의 내부는 싱글 침대가 서너 개 놓여 있고, 가운데는 난로가 설치돼 있다. 나는 별을 헤는 밤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잠깐 침대에 누워 땡 뚫린 천정으로 파란 하늘을 바라다본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숙소 밖으로 나오니, 마을 원주민이 몰려온다. 그들은 말을 끌고 와서 승마를 하라고 유혹한다.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협상을 하고 승마를 즐긴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진다.

“여행의 진수는 자유에 있다”라는 명언처럼, 우리는 말에 올라 자유

를 누리며, 드넓은 초원 위를 마음껏 달린다.

시아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과 맑고 푸른 하늘뿐이다.

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푸른 초원의 풋풋한 향기를 마시며 방랑의 유혹에 빠진다.

7월인데도 해가 넘어가자 우리나라의 겨울처럼 쌀쌀하다. 숙소에 들어가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핀다. 오늘 저녁식사는 양고기 요리다.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가지고 오더니, 즉석에서 배를 가른 다음 뜨거운 국물을 마시라고 권유한다. 우리는 국물과 고기도 함께 먹는다. 별미는 아니지만, 전통 조리법이 더 흥미롭다. 저녁 식사 후, 낮에 승마를 하면서 친해진 유목민으로부터 초대 받는다.

그들은 각자의 말을 끌고 와서는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 낮에 잠깐 익혔던 승마 실력을 발휘해 말 위에 올라타고, 어둠을 헤치며 앞서 인도하는 그들을 따라 간다.

유목민의 주거지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와 똑 같은 하얀 천막의 게르다. 내부에는 가족 수대로 싱들 침대가 둥그렇게 놓여 있고, 가운데는 난로가 설치돼 있다. 난로의 땀감은 말똥인데, 오랫동안 말려서 장작대신 사용한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준 안주인은 난로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말 유를 마시라고 권유한다. 조금은 비위생적인 생각이 들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그의 순수한 모습에 차마 거절할 수 없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표하고 따뜻한 말 유를 마신다. 처음 맛보는 말 유는 정말 구수하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우리를 초대해 부부는 보드카 한 병과 바짝 마른 빵 몇 조각, 직접 만든 치즈를 술안주로 내놓는다. 술안주 치고는 매우 초라하지만, 식량이 부족한 초원에서의

안주로는 매우 훌륭하다. 서로 언어가 달라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온 몸으로 연기한 덕분에 정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부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좀 더 놀다가라고 하지만, 내일 일정을 위해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숙소로 가는 길은 따로 정해진 바 없어, 한편의 동화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빛과 은하수를 따라 초원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온다.

나는 열기가 식어버린 난로에 장작을 넣고 다시 불을 지핀 후, 하얀 침대에 눕는다. 땀 뚫린 천정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억만 년 전에 태어난 무수한 별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공해가 없는 몽골 대초원의 밤하늘엔 초롱초롱한 별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세다가 그만 달콤한 꿈나라로 떠난다.



 몽골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수평의 초원
정해진 길이 없는
테렐지의 모든 것은
하늘로 향한다
순전하게 웃는 사람들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말 유 한잔에
우정이 넘나드는 시간
인류의 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
마른 빵 몇 조각에
보드카 한 병
온 몸으로 대화하던
게르 속 진풍경
국경을 넘은 모든 것은
별과 함께 누웠다.

❀ 붕어 낚시 ❀

송림으로 둘러싸인
송지호
얇은 물가에서
갯지렁이를 잡아다
붕어 낚시를 했지
대나무로 손수 만든
볼품없는 낚시대
젓 먹던 힘 다해
멀리 던지면
붕어 떼가 몰려들었지
싱싱한 붕어를
종다래끼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화롯불에
노릇하게 구워주셨지.



五

五

五





재주와 덕(德)

現(사) 강원고성갈래길본부 대표이사 / 권성준

나의 외손주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원생에서 학생이 되었다고 뽐내는 손주가 귀엽다. 학교 가기를 늘 기다리는 손주 녀석이 참 기특하다. 유치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친구를 만난다는 게 손주에 부푼 꿈이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방 입학한 친구들과 대화도 하기 어렵고 마음껏 놀 수도 없으니.... 거기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함께 하는 친구가 드물며, 쉬는 날도 친구 만나기가 어렵다고 투덜거리며 말한다.

"무엇이 그리 바쁜데?"

학교 가야지...태권도장도 가고, 영어교습, 미술교습, 과학교실 등. 어린아이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놀 시간도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천재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재로만 키우려는 욕심에 오늘날 온갖 재주만이 넘쳐나니 걱정이다.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재주가 덕(德)을 이길 수 없어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자는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 하여 덕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지식이 많은 머리를 만들기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높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덕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천재불용(天才不用), 공자와 황택(皇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자.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애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주겠느냐?”

그런데도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서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 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라 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 “바둑을 좋아하느냐?”

그러자 황택은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으며,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하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자식을 못 낳는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허수아비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나?”

“반딧불이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나?”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쭙도 되겠습니까?”하고 말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르자 아이는 이렇게 물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 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짝 차서 그럴 것이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하고 말했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하늘에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德)이 부족해 궁극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봤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이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머리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거짓과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의하면 '재주와 덕을 겸비한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재주도 덕도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하였으며, 덕이 재주보다 앞서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재주가 덕을 앞서는 자를 '소인'이라 하였다.

채근담에도 '인간사회에서 덕이 첫째이고 재주가 그 다음이다. 덕이 주(主)가 되고 재주는 종(從)이 된다. 덕과 재주를 겸비할 때 비로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덕이 없고 재주만 있다면 경박하여 재앙이 따른다. 차라리 덕이 있고 재주가 없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미국 교육부로부터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대상'을 받은 재미동포 전해성 박사의 자전적 수필집 제목이다. 6명의 자녀를 의사로, 대학교수로, 그리고 법률가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추앙받도록 훌륭하게 키운 전 박사의 가정교육 철학은 '재주가 덕을 이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전해성 박사는 '첨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에서 자녀 교육 노하우는 바로 덕이라고 했다.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오히려 힘과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아이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기업가 아타라시 마사미는 '사장에 오른다는 것은'이라는 책에서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20퍼센트고, 덕이 80퍼센트다. 재능이라는 업무 능력보다 덕이라는 인간력이 네 배는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자기 껍데기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다.

쓸데없이 재주가 넘쳐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건방떠는 말투와 주접떠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재(才)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주를 말하고 덕(德)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자기 수양을 말한다. 아무리 만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공든 탑이 와르르 일시에 무너지는 실패와 좌절을 맞이할 것이 뻔하다.

요즘같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만능처럼 치달고, AI(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학원 뽕뽕이를 돌리며 지식 쌓기에 열중하는 천재교육에 앞서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천재불용'의 소박한 진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지식으로 쌓은 자기중심의 가치에 앞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인성 좋은 아이로 키워야 한다.

우리 손주 녀석도 점점 커가면서, 할애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 줄 시간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할애비가 사는 이곳에 자주 와서 대자연에 진리를 터득하며....., 제발 덕 있는 사람으로 무력무력 자라 주기를 마음속 깊이 염원해 본다.







토종 약초 송지호 해방풍(海防風) 예찬

송지호 해방풍 보존회 / 신준수

"**인생**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다." 라고 한 어느 문학가의 명언에 위안으로 삼고 아내와 귀향한 지 벌써 12년이 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나라마다 빗장을 잠그고 창살 없는 감옥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신종 변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모임,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사회, 경제적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파랑(코로나로 생긴 우울감)과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모두가 어려운 요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매력적인 약초『해방풍』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해변의 인삼’, 하늘이 우리 겨레에게 내린 ‘신비의 약초’라고 불린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야생초로 『동의보감』에는 중풍에 효험이 있다고 지어졌고 혈액순환을 돕고 폐 질환에도 좋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릉분원에 따르면 인삼에 가까운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한다.

해방풍은 다년생 ‘미나리’과 식물이다.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 주연의 ‘미나리’라는 영화는 낯선 미국 땅에서 뿌리내리고 강인하게 잘 살 수 있는 어느 한국 이민 가족의 원더풀한 이야기이다. 미나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해방풍도 어디에서든지 잘 크는데 바닷물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특이한 것으로 전남 여수지방의 ‘방풍나물’과 시중 마트나 모종으로 판매하는 ‘방풍’과는 다르다. 역센 파도의 횡포를 참고 견디는 강인한 근성을 가졌으며 우리 조상들의 건강과 허기를 채워 준 구황식물(救荒植物)이다. 잎은 지표면에 깔려서 자라고 뿌리는 깊게 뻗으며 퇴비, 농약, 제초제 없이도 백사장에서 잘 자라는 무공해 식물이다.

6월경에 메밀꽃처럼 하얗게 꽃이 핀다. 그동안 ‘한국인의 밥상’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특유의 맛과 향기 그리고 중풍과 폐 질환에 좋다고 자주 소개되자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몰려와 무모하게 뿌리째 캐 가고 군청에서는 경고판까지 설치하고 보호 대책을 세웠지만, 워낙 좋다고 하니 속수무책이다.

학교 후배 부부로부터 소개받아서 알게 되어 애착을 가지고 추진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귀향하여 2년간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 교육을 받았다. 당시 간성읍 동호1리가 강원도로부터 새 농촌 건설 운동 마을로 지정되어 교육을 함께 받았다. 35년 전 마을에서 생산된 해방풍이 전량 약재로 팔려서 꽤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FTA 체결로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자 포기했다고 한다. 그때 마을 이장께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해방풍 마을’로 지정하고 마을 소득사업으로 권유했으나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사양하였다. 이분들로부터 해방풍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싸움만 잘 한 게 아니라고 어느 기자 출신의 저자는 말한다. “경제를 일으켜 조선을 구하다”라는 책에서 해안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일자리를 제공한 ‘경제전문가’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주장하기에 감명을 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농업을 중시하고 어업을 경시하였으며 왜구의 잦은 약탈로 섬에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였고 해변을 내버려 두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섬과 해안가를 개간하여 굶주린 피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왜군과 싸웠다는 것이다. 당시 내륙지방은 상당히 춥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양성 기후로 따뜻하고 수렵하면서 연명이 가능한 해안가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고성군은 세계적인 관광 국가인 스위스, 내륙지역인 화천, 양구,

철원 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동해와 석호, 그리고 길게 펼쳐진 은빛 해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래사장인 공유수면이 약 6백6십만㎡(220만 평)이 된다는데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불모지로서 해방풍이 유일하게 생존하는 약초이다. 이 중 10%만 재배한다고 해도 66만㎡(22만 평) 이상 경작하여 고부가가치의 특산물을 생산, 가공하고 4계절 연속체험 등으로 6차 산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8년 전 모 신문사에 ‘해안가 유희지에 해방풍 약초를 기르자’라는 기고문을 냈는데 당시 액자를 크게 만들어 선물로 주어서 벽에 걸어 놓고 보고 있다. 특히 필자의 마음을 더욱 부추긴 것은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보내준 『프로방스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요약 소개한다.

프로방스 이야기

어느 날 한 여행자는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가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30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양치기는 황폐한 지역에 도토리를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면서 3년 전부터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꾸준히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돼 우연히 예전의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방문했고 놀랍게도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도토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다고 하는 오늘날 세계적인 휴양지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중에서, 2014년 보냄」

이 자료를 받고부터는 용기를 내어 해방풍보존회원, 지인, 친구, 연로하신 부친, 손자들과 함께 바닷가 수만여 평 면적의 공유수면에 많은 양의 해방풍 씨앗을 심었다. 그 지역은 화진포, 공현진, 송지호 하구

해변 주변의 빈 땅 공유수면이다. 심지어 등산을 좋아해서 설악산 대청봉과 봉정암에도 시험 삼아 씨앗을 심었고, 지역의 주요 행사 때에는 해방풍 씨앗을 분양하고 해방풍술도 전시·홍보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프랑스의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1953년 작품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소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지난봄, 모 중앙일간지 ‘주말의 시선’편(2021.3.20일 자)을 읽고서야 알았다. 신문에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실로 믿고 실천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를 통해 보람된 일을 했고 좋은 거짓말이라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관청의 허락 없이 바다에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이용하여 작지만 ‘송지호해방풍공원’을 만들었다. 해방풍을 보노라면 끈질긴 생명의 소중함과 평온 심을 갖게 하고 먼 인생길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반려식물』인 것이다.



【송지호 해변의 해방풍】

바로 옆의 송지호에는 송어가 뛰어놀고 물오리와 철새 고니가 산다.

특히 가칭 ‘송지호해방풍전망대’에는 우리 집 마당 자갈밭에서 억척스럽게 올라온 해방풍을 화분에 이식해 키우다가 이곳으로 옮겨 방문객에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데크 목재로 무대처럼 높게 만들어진 한적한 이곳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어 마음껏 노래 부르며 외칠 수도 있다.

또한, 광활한 수평선, 길고 넓게 펼쳐진 해변의 백사장, 조개껍데기, 멀리 보이는 고성군의 영산(靈山)향로봉(1,293m),

신선봉,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1,708m)중·소청봉, 울산바위가 보이는 유일한 곳이다. 긴 벤치에 누워서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보노라면 코로나 사태로 삶에 지친 우리에게는 최고의 힐링 장소이자 ‘영혼의 자유 지대’라고 소개하고 싶다.

국제슬로우푸드협회장(회장:김종덕)이 모 중앙 일간지(2019.1.25 일자)에 ‘사라져가는 토종 식재료 살리자’에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의 보호 식물로서 경북 울진군 해방풍이 한식 ‘맛의 방주 100호’로 등재되었다고 홍보했다. 세계적인 보호 식물인지도 모르고 보존 활동을 고성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아쉽지만,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6·25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로 미군의 원조 식량 및 구호품을 받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 민둥산이라 귀한 딸감을 구하려면 멀리 간성을 해상리에 가야 했는데 동네 뒷산에 주인 몰래 가서 구하면 쉬웠다. 그 산주인이신 ‘두백이 할아버지’께 들키면 딸감을 놓고 도망 나오곤 했다. 그때 남벌을 막았기에 지금 그 산은 울창하고 장성한 노송이 되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현시대에 ‘두백이 할아버지’의 찌렁찌렁하게 산을 울리며 호령하시던 목소리가 그립다.

위와 같이 두 분의 영향을 받아 서인지 남다른 열정으로 갖은 시샘과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존 활동을 계속하였다. 9년간 공유수면에 해방풍 재배 허가를 받기 위해 국방부, 동해지방해양청, 고성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송지호 해변에서 잘 자라고 있는 해방풍】

관계기관에 끈질기게 설득하여 2019년도 봄에 어렵게 고성군청의 허가를 받아냈다.

다양한 시험 재배, 음식 개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했다. 특히 보관 중인 영농일지, 강의록, 참고자료철, 사진철 및 USB(보조기억장치)는 든든한 자산이다.

당시 국방부 군사연구위원으로서 좀 더 알기 위해 통일전망대로부터 토성면 용촌리까지 약 70km의 해안을 바닷물에 빠져 가면서 2회 답사했고, 경북 울진, 강릉, 삼척 동해시 등 농업기술센터와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배우고 그 주변 해변을 다녀오기도 했다. 거진을 대대리에서 살면서 송지호 하구까지 배낭을 메고 자전거로 다녔으며, 심지어 거동 수상자로 몰리기도 하였고, 남들이 휴가를 즐길 때 퇴역병에서 키우고 관리하였다.

학교 동창생들의 도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CAMCO)로부터 임대한 땅(4,220㎡)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해양심층수 농작물 실종사업소 등에서 시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다. 특히 집 정원에 작은 시험 단지를 만들어서 해변에서 자라는 해방풍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음식으로는 차, 떡, 호떡, 빵, 국수, 칼국수, 수제비, 회무침, 장아찌, 샐러드, 담근 술, 튀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시험했는데 잎이나 뿌리를 2차로 가공하면 지역특산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이밖에도 막걸리, 닭백숙, 꿩고기에 시험한 결과 애주가와 미식이 및 조리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평가서인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 선생은 책 첫머리에 “외가인 강릉의 방풍죽을 자신이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별미로 손꼽았다”고 하면서 “한 번 먹으면 사흘 동안 달콤한 향기가 가시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설악신문에서는(2018.4.23, 엄경선 전문기자)속초의 음식 생활사에서 조선시대 인조 때부터 250년 동안 내려오다가 사라진 유일무이한 향토 별미, 간성 방풍 홍합 젓’을 소개했다. 1633년 인조 11년에

간성현감 태당 ‘이식’이 발간한 『간성읍지』에는 ‘방풍홍합젓’을 매년 3월에 채취한 해방풍으로 임금에게 정기적으로 특산물로 진상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 성종 때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통해 중국이 요구한 품목의 하나로 홍합 젓이 나온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는 진상품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양양도호부의 약재로 나오고 1759년 간행된 양양부읍지 문헌에도 양양의 약재로 나왔다고 한다.

임금의 수라상에 진상품으로 올리고 중국 황제에게 바친다며 중국 황실에서 요구한 이 진귀한 특산품을 고성군의 전통음식으로 복원한다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간성읍 상리에 사시는 김00 어르신(81세)께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시다. 어릴 적에 지역에서 한의사였던 선친(김석현)께서는 “해방풍 3뿌리만 먹으면 중풍을 막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기억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37년 전 교통사고로 거동을 못 하는 친한 동창생이 있는데 해방풍은 혈액순환이 잘되고 온기가 돈다며 약재 연구를 해보라며 만날 때마다 권고하고 있다. 이제는 ‘해방풍 홍보맨’, 역대 어느 고성군수께서는 ‘해방풍 전도사’라고 치켜세웠고 어느 항구에서는 ‘해방풍 00’가 왔다고 조롱한다고 한다. 이제는 만나는 지인분들도 으레 “해방풍은 잘 되느냐”고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 저의 미래 청사진(버킷 리스트)에는 ‘해방풍 아저씨’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지난 6월 말에는 고성군문화원에서 통일전망대 부근으로 회원 약 60명이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차 안에서 어느 분이 “해방풍 사업은 잘 되느냐”면서 언제 현장에 가 볼 수 있는지 묻길래 송지호 해방풍 사업은 지난봄에 모 장애인 단체로 넘겼다고 했다. 마침 요즘은 꽃이 피는 시기라서 오늘 모시겠다고 대답했다.

통일전망대 출입사무소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 망원경까지 구입해 오셨으니 호기심이 대단하신 분이다. 민통선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외금강이 보이는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 내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드디어 해금강 구선봉, 푸른 동해와 하얀 백사장이 시원스럽게 펼쳐진 ‘고성통일전망대’ 3층에서 망원경으로 하얗게 핀 꽃을 사실로 확인하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작년 10월 이전부터 고성군수님에게 해방풍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권유를 몇 번 받았다. 그 이후 겨울이라 실내에 온실을 만들고 시험 재배를 하였고, 설 명절 무렵에 군수님께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분들을 대동하고 재배현장에 격려까지 하셨다. 그로부터 모 장애인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사업을 하겠다고 소망하기에 평소 계획대로 지난봄에 사업을 이양하였다.

앞으로 장애우분들이 스스로 땀을 흘려 생산, 가공한 고성 특산명품이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여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장애우분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 소외계층을 보듬는 ‘한우리공동선’(대표: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서 봉사 활동하면서였다.

동해안은 각종 관광 개발과 해안침식으로 모래사장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관내에는 28개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풍선효과로 예년에 비교해 많은 피서객이 캠핑카에 음식을 가득 싣고 와서 “지갑은 달고 해변에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는 관리책임자와 상인분들의 하소연이다. 세계 인구가 약 78억 7천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식량 자급률이 45.8%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식량 대란에 대비해야겠다.

또한, 지역 내 다른 특산물과 함께 해방풍을 이용한 음식과 건강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내놓는다면 좋을 것이다. 미래의 이슈는 수명연장, 110세 시대를 앞두고 고성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와 중풍(뇌졸중)인데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국민 행복지수와 연결될 것이라 본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930여 회의 외침을 받았으나 ‘미나리’와 ‘해방풍’처럼 억척스럽게 견뎌내는 한민족 특유의 근성으로 세계 11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나 극단으로 치닫는 분노, 갈등과 내전에 가까운 당파싸움으로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기에 자식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면 요즘 잠을 설친다.



특히나 미군 철수 결과로 발생한 아프카니스탄의 몰락 사태를 보면서 6. 25한국전쟁의 발단이 된 『애치슨 라인』처럼 또다시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고성지역은 위도상 황해북도 사리원과 비슷한 위치로 기형적이다. 해방 후 38선 이남이었던 『개성』을 빼앗긴 서부전선과는 달리 동해안은 UN군, 국군, 경찰, 노무자들의 목숨을 바쳐 빼앗은 땅으로 수복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므로 코로나 19와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새겨두고 ‘총화 단결’해야 산다.

그러므로 2022년 가을에는 필자에게 끈질긴 인내심과 강한 긍정의 면역력을 키워준 일터요, 놀이터요 힐링 장소인 송지호 해변에서 죽왕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송지호해방풍 화합·상생 축제’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3회에 걸쳐 소규모로 가칭 ‘해방풍 평화통일 축제’를 하면서 씨앗 파종, 잎 채취, 뿌리 캐기, 해방풍술 담그기 등을 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축제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2023년도에는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해북부선 철도가 놓인 해금강과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민간교류 차원의 ‘남북 고성 장애인 해방풍 평화축제’를 소망한다. 우리 고성군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군(郡)으로 가치 있는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엘제아르 브피에』와 『두백이 할아버지』처럼 지낸 지 10년이 지났다. 필자가 고향을 너무 사랑한 죄로 생긴 그동안의 오해와 조롱거리가 된 사연이 많은 것이 해방풍 보존 활동이다. 앞으로 개성의 ‘고려인삼’보다 더 각광 받는 세계 일류의 『고성해방풍』이 테마 있는 6차산업으로 될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렌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삶의 재충전이 필요한 분들이시여! 『해방풍』처럼 끈질기게 참고 버티면 이 또한 극복되리니, 용기와 희망을 듬뿍 주는 한적한 『高城』으로 편히 오소서!

2021. 제9호 고성문화



향토문단



江原道高城文化院





건봉사(乾鳳寺) 이야기

문화관광해설사 / 최점석

건봉사와 나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설악산 오세암에 있던 나는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하러 건봉사를 처음으로 찾게되며 사리를 친견하며 환희심을 느꼈다. 건봉사와 인연을 말미로 결혼 후 이곳 강원도 고성군민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8년은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된 것은 건봉사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었다. 건봉사는 520년 아도화상이 원각사란 이름으로 창건하여 선교 양종의 대본산이 되었다. 고려말 나옹화상이 사찰 서북방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고 지은 건봉사란 이름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건봉사는 정말 대단한 사찰이다.

고려 시대까지는 그저 명맥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조선이 개국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사찰이다. 송유역불 책에 의하여 승려들이 탄압을 받았던 시기에 건봉사는 반대로 크나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조선의 세조가 이곳 건봉사를 다녀가게 되면서 조선왕실의 원당 사찰로 지정하게 되고 성종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숙주, 한명회, 조흥수, 효령대군이 건봉사를 찾아와 건봉사에서 사방 십 리를 건봉사의 토지로 삼게 하고 바다에 미역을 채취하는 체곽선과 염전권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받았다.

조선 중기엔 사찰의 규모가 무려 3183칸이 되었다. 요즘으로 친다면 20평 건물이 300여 채 정도의 크기로 사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선조의 격문에 의하여 이곳

건봉사에서는 최초로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일으키며 호국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이곳 건봉사에서 근대식 학교인 봉명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계몽 활동을 하여 우리 고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신문물을 받아 깨우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방 이후 이곳은 38선 이북지역으로 북한의 통치를 받아 종교 활동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6.25 전쟁 시에 다시 이 지역을 수복하는 등 전쟁 당시에 무려 18차례에 걸쳐 남과 북이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로 폐허가 되고 결국 지금 우리 땅이 되어 건봉사를 복원하게 되었다.

건봉사의 복원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1986년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도굴당하고 되찾는 과정이 3년이 걸릴 정도로 부침을 겪었다. 부처님 치아 사리는 본래는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던 것이다.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이후 1604년 일본에 사행을 떠났을 무렵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을 부수고 약탈했던 사리를 되찾아 오시면서 또다시 왜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시어 사리를 분장하게 되는데 전골 사리는 대구의 용연사에, 이곳 건봉사에는 치아 사리(12와)를 봉안했다. 이는

사명대사 기적비에 기록되어 있어 부처님 사리의 내역을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명대사 기적비는 일제강점기에 왜놈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세 토막으로 부숴버린 것을 최근 고성문화원과 고성군이 복원하여 사명대사 기념관 앞에 모셔놓았다.



【금강산 건봉사 등공대 걷기 중 해설】

또한, 건봉사는 염불만일의 효시 등공대가 있다. 만일이라 함은 27

년하고도 145일 동안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극락정토에 가기를 소망했던 불자들의 염원이다. 최근 건봉사에서 제7차 염불만일회를 헌담 주지스님이 8/24일 봉행하여 만일을 이어가실 것이다. 현재 이곳은 민통선 안에 위치해 사전에 군부대의 협조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여야만 한다.

끝으로 이 건봉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이루게 해 주었다. 무지령이었던 내가 고성군을 홍보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 건봉사에서 14년째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건봉사와 고성군을 홍보하는 해설사로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쭉 - 현재진행형이다.







아리아리 예술단을 만나다!

아리아리예술단장 / 엄채란

노인들 제2의 인생 즐거운 시간 보내

2020년도 KBS 강릉방송국 오후5시, 정보쇼 “제2인생 즐겁게”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행복 충전시간, 그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대담하는 내용을 들었다.

동해안의 최북단 위치한 강원도 고성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는 엄단장은 지난 2011년 “아리아리예술단”을 창단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전통민요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실버시대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퓨전난타, 장구, 심벌즈, 물동이 장단 등 대중성 있게 함경도 민요 등을 접목하였고, 그 대상은 60-80세 나이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공연과 취미를 위해 열심히들 참여하고 있다.

당초에는 30여 명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20여 명의 정회원들이 참여 한다고 했다. 지금도 고성문화원 공연연습실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산수갑산 머루 다래 얼크러 설크러 졌는데 나는 언제 임을 만나 얼크러 설크러 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어야 내 사랑아."

노래 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진다.

엄단장은 고성문화원 아리아리예술단장으로 10년간 고성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며 후학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지도강사이며, 또한 탁월한 실력으로 공연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관내의 70-80세 노인들은 주기창 고성문화원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으며 즐거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공연 활동을 살펴보면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전 행사·국회의사당 초청공연·어린이대공원 등 국내의 규모있는 행사는 물론수성 문화제나 통일고성 명태축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참여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한민국 어르신 문화 동아리 경연대회(The 실버스타-K강원)에 참가하여, 고성문화원 소속의 아리아리예술단이 전국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김숙자(72세)회장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애로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용기가 생겼으며, 삶의 에너지를 느끼며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싶다며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했다.

< 취재 최선호 >

【전국대회 수상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 세37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상문화제

※ 3월 31일(토) ~ 4월 1일(일) ※ 10시 ~ 12시 30분 공연예정





고성의 명물, 흘리황태덕장

정 원 회장

"국내 최적, 최대 건조 생산지"

2021년 2월4일 엇그제 입춘(立春)이 지났으나 진부령(陳富 해발520m)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과 잔설이 온 산을 덮고 있다. 이런 거친 환경에서 약 15년째 황태건조 일만하고 있다는 정원(58세)회장을 소개할까 한다.

정회장은 현재 흘리 황태연합회 회장을 맡아 고성의 명물인 황태건조에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간성읍 흘리령길 183(흘2리) 마산봉(馬山峰 1,058m)아래 구릉지역 7,000여평의 대지에 대규모의 덕장을 설치하여 해마다 생태 800여톤씩을 황태로 만드는 전국 최고량을 생산하고 있는 산지이다.

이곳 황태는 주로 러시아산으로서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해도 2억 5천여만원 으로, 당해 년도 10월부터 시작하면 다음해 4월(약 6개월)경에 모두 끝나게 되는데 위탁건조 금액만 80억이 넘는다고 했다.

진부령 흘리 황태건조는 무공해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해발750m의 지역에서 겨우내 고산 청정지역에서 차가운 바람과 눈을 맞으며 열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노오란 황태로 잘 건조된다.

흘리 덕장은 국내 어느지역 보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적지라고 했다. 맛있고 뽕송 뽕송한 황태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추위와 바람, 눈이 많이 내려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 명태에 쌓인 눈이 얼었다 녹으면서 명태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십번에 걸쳐 수축을 반복해야만 쫄깃한 맛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명태(明太)는 하나도 버릴것이 없는 생선으로도 유명하다.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여 금방 잡아올린 명태는 생태라하고, 그물로 잡으면 망태, 봄에 잡히는 명태를 춘태라 한다. 또한 가을에는 추태, 얼리면 동태, 말린것 흰색이면 백태, 검은 색을 띠면 먹태, 명태 새끼는 노가리라 부르며, 반건조 상태로 마른 것을 코다리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쓰임새가 반찬으로 다양하게 요리를 하는데, 명태알은 명란으로 만들고, 창란 또한 가공하여 반찬으로 쓰이며, 명태에서 나오는 간은 어유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곳 흘리 황태덕장에서 잘 건조된 황태는 속살이 희고(노오란색)부드러우며,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주로 서울

진부령 흘리 마삼봉 아래 황태덕장 건조 모습



가락동 시장 및 중부시장에 납품한다고 했다. 이곳은 마산봉에서 새이령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옛날에 봇짐 지고 가축을 끌고 영서에서 영동으로 가고 오던 고갯길로서 애절한 보부상의 삶이 서린 대간령(일명:새이령) 옛길이 있는 곳.

마산봉 아래 새이령~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임도까지 약 8km(소요 시간 4-5시간)이나 되며, 지금도 옛 마장터의 주변에는 주막터가 남아있으며 마산봉을 지나 동해의 금강산 남쪽 제1봉인 신선봉(해발 1,204m)성황골, 구절터등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이어져 있다.

이렇듯 이 지역 황태덕장은 지형적인 유명세와 더불어 함경도 원산 등지가 주산지였으나 과거에 6.25전쟁을 거치면서 피난을 온 그들이 망향의 한을 달래면서 함경도의 날씨가 비슷한 진부령 흘리에서 황태를 건조하게 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 취재 최선호 ||

정원씨가 인부들과 함께 황태를 관리하고 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

"간성 신안리 달호공원에서"

강원도 고성군이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고성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제막식을 간성 달호공원에서 2020년 8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 고성군은 동해안 최초로 3.1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한 발원지로서 우리 지역 애국지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3월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함명준 고성군수, 함형완 고성군 의회의장, 박효동 강원도의원,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고성문화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리아리예술단의 천수바라춤, 한울 공연팀의 농악 터 밟기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의 건립 경과보고와 작가, 시공업체,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각각 군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함명준 고성군수의 '고성군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문 낭독에 이어 기념비 제막식에는 초헌관 함명준 군수, 아헌관 유족대표, 종헌관 주기창 고성문화원장이 맡았으며 10여 명이 제막 테이프를 끊었다. 제막식 후 2부 행사로 고성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제례 행사와 이선국 시인이 헌시를 낭독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비는 행정안전부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념탑 “햇불을 들다”(9.7x10.3x7.45(H)/ 조각가:신종택)를 조성한 것이다.

작품의 내용은 3.1 독립운동을 의미하는 3개 주탑의 유려한 곡선으로 그날의 빛나는 항쟁의 햇불을 표현했고, 기념탑 중심은 3.1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 바닥은 무궁화 패턴을 적용하였으며, 주탑 양옆은 동상을 세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독립운동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화했다.

이번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은 해로서,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취지로, 매년 토성면 운봉리 송모 공원에서 진행한 3.1절 기념행사를 이제는 고성군의 중심인 간성달홀공원에서 갖게 되는 원년으로서 고성군 지역 독립운동사를 비롯한 고성군민들의 웅혼한 기상과 정신을 계승·승화하여 미래 세대에게 역사교육장, 평화통일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성문화원 제공)



【고성 달홀공원에 위치한 3.1독립만세운동 제막식 / 2020. 08. 15】



【고성 달흘공원에 위치한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2021. 제9호 고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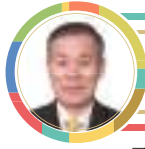


향토사 조명



江原道高城文化院





금강산(金剛山) 사찰(寺刹)들

고성향토사연구소/ 이선국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금강산엔 우리나라 이름 있는 명찰이 많았다. 노랫말에는 8만9 암자로 일컬을 만큼 많고, 심지어 절도 100곳에 이른다고 할 만큼 많았다고 전한다.

대표적인 유점사(楡岾寺)를 비롯해 신계사(神溪寺),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정양사(正陽寺) 등이 있고 현재 남쪽에 현존하는 건봉사(乾鳳寺)와 화암사(禾岩寺)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절 대부분은 6.25 한국전쟁 당시 불타고 표훈사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찰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유서 깊은 금강산 사찰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6.25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점사(楡岾寺)

사지(寺誌)에 따르면 원래 이 절은 서기 4년(유리왕 23)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53불(佛)의 연기(緣起)와 관련된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 민지(閔漬)의 기문(記文)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입적한 뒤 인도 사위성(舍衛城)의 사람들은 생전에 부처님을 보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 53구의 불상을 조성한 뒤 이를 배에 태워 바다에 띄우면서 유연국토(有緣國土)에 갈



것을 발원하였다. 이 배는 신룡(神龍)에 의하여 바다를 항해하다가 월지국(月支國)에 닿았는데, 왕이 이 불상들을 공경하여 전당을 짓고 봉안 하였으나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전각이 타버렸다. 왕이 다시 전당을 짓고자 하였으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날 것이니 수고하지 말라.” 하고 만류하므로 이 53불을 다시 배에 태워 바다에 띄웠다.

이 배는 90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다니다가 신라의 안창현(安昌縣) 포구에 닿았다. 현관(縣官), 노춘(盧椿)이 나가 보니 불상들은 없고 바닷가의 나뭇잎이 모두 금강산을 향하여 뻗어 있었다. 이에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흰 개가 나타나서 앞장을 서서 따라갔더니 큰 느티나무가 서 있는 못가에 53불이 있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찾아가서 그 땅에 절을 짓고 유점사라 하였다는 창건설화이다.

해방 전까지 53불 중 3불이 없어지고 50불이 남아 있었다. 창건 이후 1168년(의종 22)에는 자순(資順)과 혜쌍(慧雙)이 왕실의 시주로 당우 500여 칸을 중건하였고, 1213년(강종 2)에는 강종이 백은(白銀) 1,000냥을 대선사 익장(益藏)에게 보내어 중수하도록 하였으며, 1284년(충렬왕 10)에는 행전(行田)이 시주를 얻어서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1295년에 중건을 완료하였다.

1408년(태종 8)에는 효령 대군이 태종에게 아뢰어 백금 2만 냥을 얻어서 건물 3,000칸을 중건하였고, 1453년(단종 1)에는 신의(信義)·성료(性了) 등이 중건하였으며, 1595년 (선조 28) 유정(惟政)이 인목대비가 하사한 내탕금(內帑金)으로 중건하였다.

1636년(인조 14) 화재로 소실된 뒤 곧 중건하였고, 1703년(숙종 29)에는 백금 2,000냥으로 중창하였으며, 1759년(영조 35) 불에 타자 북한치영(北漢緇營)의 승병대장 보감(寶鑑)이 와서 10년의 공사 끝에 중건하였다.

현재의 당우는 53불을 안치한 능인전(能仁殿)을 비롯하여 수월당(水月堂)·연화사(蓮華社)·제일선원(第一禪院)·반룡당(盤龍堂)·의화당(義化堂)·서래각(西來閣) 등 6전(殿) 3당(堂) 3루(樓)가 있다.

이들은 1882년(고종 19)의 대화재 뒤 우은(愚隱)이 중창하였고, 근대의 대선사 대운(大雲)이 중수한 것이다. 이 중 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은 연화사인데, 이곳은 만일회(萬日會)를 열던 법회장 소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31본산 시대에 이 절은 산내·산외 말사 60개의 절을 관장하였던 금강산 제일의 가람이었다.

이 밖에 중요문화재로는『보살계첩 菩薩戒牒』과「보문품」이 있었다. 나옹화상이 스승인 지공(指空)에게서 받은『보살계첩』은 가로 약 7cm, 세로 약 10cm 크기의 감색 장지에 금니(金泥)로 쓴 것을 책으로 묶은 귀중한 문화재이다. 이 계문의 말미에 있는 ‘지공’이라는 수결과 산스크리트 계송(偈頌) 등은 모두 지공의 친필이어서 귀중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인목왕후가 친필로 쓴 은자「보문품」은 왕후가 서궁(西宮)에 유포당하고영창대군이 참변을 당하였을 때 슬하에 남은 외동딸을 위해서 불보살의 보호를 받으려는 간곡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 觀世音菩薩普門品」을 필사한 것이다.¹⁾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기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봉사 기병설과 겹치는데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서명대사가 건봉사 백련암(白蓮庵)에 거처한 기록으로 보아 건봉사가 정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에 위치한 절은 6.25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계사(神溪寺)

신계사(新戒寺, 新溪寺)로도 표기한다. 519년(법흥왕 6)에 보운조사(普雲祖師)가 창건하였다. 예로부터 이 절 옆에 있던 신계천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살생으로 성역(聖域)의 참된 뜻을 더럽힌다고 하여 보운조사가 용왕(龍王)에게 부탁해서 고기를 다른 곳에서 놀도록 하였으므로 그 신비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神)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1)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정사:楡岾寺))

창건 이후 653년(선덕여왕 7)에는 김유신(金庾信)에 대한 왕실의 기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수하였고, 682년(신문왕 2)에는 김유신의 부인이 중건하였다. 786년(원성왕 2)에는 태능(泰能)이 중건하였고, 886년(정강왕 1)에는 한림왕(翰林王)이 중수하였다. 918년(경명왕 2)에 법인국사(法印國師)가 중수하였고, 1130년(인종 8)에 묘청(妙淸)이 중건하였으며, 1332년(충숙왕 복위 1)에는 우심(尤深)이 중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52년(문종 2)에 해파(海波)가 중건하였고, 1485년(성종 16)에는 지료(智了)가 중수하였으며, 1531년(중종 26)에는 유환(宥還)이 시주를 얻어 중건하였다.

1597년(선조 30)에는 강원감사 황용중(黃隆中)이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린 절을 중건하였고, 1669년(현종 10)에는 석철(石喆)이, 1711년(숙종 37)에는 청취대사(淸暉大師)가 각각 중건하였다. 그 뒤 1782년(정조 6)에 재우(載雨)와 관성(寬性)이 향로전(香爐殿)을 중수하였다. 또한 1821년(순조 21)에는 유신(宥信)이 향로전을 다시 중수하였고, 1835년(헌종 1)에는 조정(朝廷)으로부터 모연금(募緣金)을 받아 절 전체를 중수하였다.

1887년에는 대웅전을 중창하고 영산전을 옮겨지었다.

1893년에는 칠성각을 중수하고, 1914년에는 대향각(大香閣)을 중건하였으며, 1919년에는 김우화(金雨化)가 최승전(最勝殿)을 건립하였다.

1922년 12월에 용화전(龍華殿)이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고, 1929년에는 만세루(萬歲樓)를 중건하였다. 그러나 그 뒤 화재로 소실되어 1945년경에는 반야보전(般若寶殿)나한전·칠성각 등의 전각만이 남아 있었고, 반야보전 앞에 석탑 1기가 남아 있었다. ²⁾

일제강점기 31본산 중의 하나인 유점사(楡岾寺)의 말사였다.

외금강에 위치한 사찰은 6.25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1998년 3월 14일 체결된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바탕

2)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신계사(神溪寺))

으로 남측의 ‘금강산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공동으로 신계사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0월 13일에 준공식을 가졌으나 신계사의 운영을 놓고 남측과 북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 북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봉사(乾鳳寺)

520년(법흥왕 7) 아도(阿道)가 창건하고 월각사라 하였으며, 533년(법흥왕 20) 부속암자인 보림암(普琳庵)과 반야암(般若庵)을 창건하였다.

758년(경덕왕 17) 발징(發徵)이 중건하고 정신(眞信)·양순(良順) 등과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만일회의 효시이다. 여기에 신도 1,820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120명은 의복을, 1,700명은 음식을 마련하여 염불인들을 봉양하였다.

782년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31명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극락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왕생했다고 한다.

810년(헌덕왕 2) 승전(勝詮)이 당나라 현수(賢首)에게서 화엄학을 배우고 귀국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였고, 845년(문성왕 7) 백화암(白華庵)을 창건하였다.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 중수한 뒤 절의 서쪽에 봉형(鳳形)의 돌이 있다고 하여 서봉사(西鳳寺)라 하였으며, 1358년(공민왕 7) 나옹(懶翁)이 중건하고 건봉사라 하였다.

1464년(세조 10)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願堂)으로 삼은 뒤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전답을 내렸으며, 친필로 동참문을 써서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왕실의 원당이 되었는데, 성종은 효령대군(孝寧大君)·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조흥수(趙興洙) 등을 파견하여 노비와 소금을 하사하고 사방 10리 안을 모두 절의 재산으로 삼게 하였다.

1523년(중종 18) 보림이 이 절과 보림암(菩林庵)을 중수하고, 1605년(선조 38) 유정(惟政)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불사리와 부처님 치아를 되찾아 와서 이 절에 봉안한 뒤 1606년에 중건하였으며,

혜능은 안양암(安養庵)과 적명암(寂明庵)을 중건하였다.

1673년(현종 14) 수흡(修洽)과 도율(道律)이 1,200근의 범종을 주조하여 봉안했고, 1683년(숙종 9) 명성왕후(明聖王后)가 시주한 1,000금으로 불상을 개금(改金)하였다. 이 때 명성왕후는 불장(佛帳)과 탁의(卓衣)도 시주하였다.

1708년 능파교(凌波橋)의 비(碑)를 세우고 동대암(東大庵)을 창건하였으며, 1724년(경종 4) 주지 채보(彩寶)가 구층탑을 건립하고 부처님의 치아를 봉안하자 명성왕후가 천금을 내렸다. 1726년(영조 2) 석가치상탑비(釋迦齒相塔碑)를 세웠으며, 육송정 홍교(六松亭 虹橋)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

1754년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상궁 이씨와 안씨를 보내어 석가상을 만들게 하고 팔상전을 세워 월당으로 정하였으며, 8월에는 영조가 숙종의 어제절함도(御製折檻圖)와 어필서(御筆書)를 내려 어실각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1799년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南公轍)이 유정의 기적비(紀績碑)를 세웠고, 1802년(순조 2) 용허(聳虛)가 제2회 염불만일회를 열었으며, 1804년 왕비 김씨가 금 1,000금과 오동향로·오동화준(梧桐花樽)·양산 등을 내려 순조의 성수를 축하했다.

1805년 왕비 김씨는 나라를 위한 재(齋)를 올리고 병풍과『화엄경』1부를 하사하였으며, 1828년 유정의 영각(影閣)을 지었다.

1851년 유충(侑聰)이 제3회 염불만일회를 열었고, 1865년(고종 2) 화은(華隱)을 청하여 강원(講院)을 개설하였는데, 이때부터 대표적인 강원의 하나로서 많은 강사들을 배출하였다.

1878년 4월 3일 산불이 일어나서 건물 3,183칸이 전소되었는데, 이 때 학림(鶴林)이 불 속에 뛰어들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절감도 등을 꺼내었다. 1879년 개운사·중흥사(重興寺)·봉은사·봉선사(奉先寺)·용주사 등의 도움을 얻어 대웅전·어실각·사성전·명부전·범종각·향로전·보안원·낙서암·백화암·청련암을 중건하였다.

1881년 관준(寬俊)이 제4회 염불만일회를 설하였고, 1885년 운파(雲坡)가 모연금으로 대웅전·관음전·명부전·사성전의 문을 개조하고 대웅전 후면을 돌로 쌓았으며, 1886년 명례궁(明禮宮)의 토지를 매입

하였다. 1888년 청련암과 대원암이 불탔으며, 1889년 인파(仁坡)·관준 등이 팔상전·진영각·노전·극락전을 중건하였다. 1891년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소상재를 올렸고, 범운(梵雲)이 부처님 치아를 천안광덕사에서 받아 와 팔상전에 봉안하였으며, 1894년 관준이 선원(禪院)을 만들었다. 1906년 사적비를 세웠고, 어산청범음계(魚山廳梵音契)에서 석가영아탑봉안비(釋迦靈牙塔奉安碑)를 세웠으며, 봉명학교(鳳鳴學校)도 설립하였다.

1908년 제4회 만일염불회를 회향한 뒤 의중(宜重)이 제5회 염불만일회를 열었다. 1911년 조선사찰령에 따라 30본산의 하나가 되었으며, 9개 말사를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상해에서 신간 대장경 일부를 구입하여 봉안했으며, 1914년 소신대(燒身臺)에 31명의 부도를 세우는 한편 간성군에 포교소를 세웠다.

1917년 팔상전과 낙서암을 중수하였고, 1918년 능허(凌虛)와 경해(景海)가 극락전을 중수하였으며, 운파는 중종(中鐘) 5좌(坐)와 불기(佛器) 30좌를 비치하였다. 1919년 능허가 1,000원을 시주하여 불이문(不二門)과 영빈관·별실·문수교를 새로 세우고 산영교(山映橋)를 고쳤다.

1920년 인천 포교당과 봉림학교(鳳林學校)를 세웠으며, 한암(漢巖)을 청하여 무차선회(無遮禪會)를 베풀었다. 1924년 사무소를 중수하고 극락전과 만일회의 부속건물 등을 중건하였으며, 1926년 불교전문강원을 설치하고 공비생(公費生) 30명을 양성하였으며, 불상 7위(位)를 개금하고 장구사(葬具舍)를 세웠으며, 덕성(德性)의 주제로 제5회 만일염불회를 계승하였다.³⁾

6·25전쟁 때 이 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당시까지 현존하였던 당우로는 대웅전·관음전·사성전·명부전·독성각·산신각·단하각·진영각·범종각·봉서루·보제루·대지전·동지전·서지전·어실각·어향각·동고·낙서암·극락전·만일원·보안원·선원·원적암·사무소·불이문·여관·장고·성황당·수침실(水碓室) 등 총 642칸에 이르렀으나 대부분 소실되었고, 1992년 이후 대웅전과 명부전, 산신각, 봉서루, 동지전, 어실각,

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건봉사(乾鳳寺))

낙서암, 극락전, 만일원 등 일부 건물이 복원되었다.

중요 문화재로는 도금원불(鍍金願佛)·오동향로·철장(鐵杖)·대종·절감도·차거다반(礎磑茶盤) 등과 불사리탑 등 탑 8기, 부도 48기, 비 31기, 고승 영정 44점 등이 있었다. 또 부속 암자로는 보림암·백화암·봉암암·극락암·백련암·반야암·청련암·대성암·적명암·보리암·보문암·대원암·일출암·안양암·동대암·망해암 등이 있었지만 그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고성 건봉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고, 6·25전쟁 때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불이문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능파교와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조각이 새겨진 두 개의 돌기둥,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새겨진 돌기둥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31본산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神興寺)의 말사이다.

장안사(長安寺)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는 설과, 551년(양원왕 7) 고구려의 승려 혜량(惠亮)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왕명으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 때 비로전을 짓고 비로자나 철불(鐵佛)을 봉안했으며, 대장경을 절에 보관했고 오층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 773년(혜공왕 9)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중수하였고, 946년(정종 1)에 왕의 태후 신명왕후(神明王后)와 황보왕후(皇甫王后)가 각각 『금강경』과 『법화경』을 금니로 사경(寫經)해서 비로전에 봉안하였다.

970년(광종 21) 화재로 불타 버린 뒤 12년간 폐허로 남아 있다가, 982년(성종 2) 선사 회정(懷正)이 함열현 등에서 토지 1,050결(結)을 보시 받아 중건하였다.

1343년(충혜왕 복위 4)원나라 순제(順帝)의 왕후 기씨(奇氏)는 고려인으로서, 황제와 태자를 위해 금 1,000정(錠)과 공인들을 보내서 굉변(宏卞)의 감독 아래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고 새로운 누각을 건립하게 했는데,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솜씨는 금강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작품이었다고 한다. 1392년(공양왕 4)에

는 홍예교(虹霓橋)와 절의 사적비가 큰 비로 무너졌다. 1459년(세조 5) 세조가 행차하여 대웅전을 중수하게 하고 토지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1477년(성종 8)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1483년 나라에서 금 3,000관과 백미 500석을 받아 일청(一淸)이 중건하였다.

1537년(중종 32) 다시 불타 버리자 1545년(인종 1) 일청이 다시 중건하였다. 그 뒤 1708년(숙종 34) 귀옥(歸玉)이 무게 3,000근의 대종을 조성하였다. 1728년(영조 4) 묘현(妙玄)이 중창하였고, 1791년(정조 15) 순상(巡相) 윤사국(尹師國)이 전(錢) 5,000관을 내어 중수하였다.

1842년(헌종 8) 부원군 조만영(趙萬永)이 금 2,500관을 보시하여 새로 300여 칸을 증축하고, 밭 40여 석을 시주하였다.

1863년(철종 14) 호조판서 김병기(金炳冀)가 주상하여 공명첩(空名帖) 500장을 내리게 하고, 자신의 재산 중 1,200냥을 보시하여 중수하게 하였다. 김병기는 1864년에도 3,000냥을 시주해서 불상·불화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봉안하였다.

이 절은 입구에서부터 일주문(一柱門)·운성문(雲性門)을 거쳐 만천교(萬川橋)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면, 숲 사이로 만수정(萬水亭)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금강산장안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안의 오른쪽으로는 대향각(大香閣), 왼쪽으로는 극락전,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에는 본전인 대웅전이 있었다.

1945년 이전까지는 6전(殿)·7각(閣)·1문(門)을 가졌으나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축소된 것이고, 부속 암자로 장경암(長慶庵)·안양암(安養庵)·지장암(地藏庵)·영원암(靈源庵) 등을 가진 금강산 4대 사찰 중의 하나였다.

문화재로는 기황후가 중창할 때 비로자나불을 비롯하여 53불, 1만 5000불 등이 봉안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당 왼쪽의 지성전(至聖展)에 봉안된 나한상은 비범한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기황후 당시의 것인지 그 후대의 것인지는 단정 짓기 곤란하다. 부속 암자 중 안양암은 장안사 동북쪽 3km 지점에 있는데 고려 성종 때 회정이 창건한 곳이며, 이후 회도(懷道)가 이곳에서 수도하였다. 이 암자에는 미륵불과 나한상 등이 봉안되어 있다.

또한, 영원암은 신라 때 영원조사(靈源祖師)가 창건한 것으로 금강산 일원에서도 가장 맑고 고요한 수도처로 이름 높은 곳이다. 부근의 옥초대(沃焦臺)는 영원조사가 일심으로 수도하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고, 그 앞의 반듯한 돌은 영원조사가 공부하던 곳이라고 하여 책상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⁴⁾

내금강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

표훈사(表訓寺)

598년(진평왕 20)에 관륵(觀勒)이 용운(隆雲)과 함께 창건하였으며, 675년(문무왕 15) 표훈(表訓)·능인(能仁)·신림(神琳) 등이 중창하였다.

그 뒤 고려시대 원나라 영종(英宗)과 태후·태자 등이 시주하여 크게 중창하고, 지정(至正) 연호가 새겨진 은문동로(銀文銅爐)와 향합(香盒) 등을 하사하였으며, 이 절을 중심으로 각종 법회와 반승(飯僧) 등을 베풀었다.

또한, 1408년(태종 8)과 1427년(세종 9), 1432년에 창성(昌盛)·백언(白彦) 등 명나라의 사신들이 금강산 유람 도중 이곳에 와서 반승회(飯僧會)를 개최하였다.

1424년 예조의 조사에 의하면 이 절은 승려 150명이 거주하였던 대찰이었으며, 나라에서도 기존의 밭 210결(結)에 90결을 더 내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뒤의 중건 및 중수의 역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금강산은 법기보살(法起菩薩)의 주처(住處)로서 표훈사의 동북쪽 가장 높은 봉우리는 법기진신(法起眞身)이라 일컬어지며, 이 절이 금강산 법기신앙(法起信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 절의 본당은 다른 사찰과는 달리 반야보전(般若寶殿)이라 하였으며, 그 안에 『화엄경』의 법기보살 장륙상(丈六像)을 안치하였다.

4)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안사(長安寺))

그리고 불상을 법당 정면으로 모시지 않고 동쪽에 있는 법기진신 봉으로 향하도록 안치하는 특수한 관례를 적용하였다. 또한 절 뒤의 법기봉에 대한 고유한 제사의식도 행해졌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밝힐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존 당우로는 반야보전을 비롯해서 영산전·어실각(御室閣)·산신각·능파루(凌波樓)·판도방 등이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원나라 황실의 하사물 외에도 몽산화상(蒙山和尚)의 가사(袈裟)와 나옹화상(懶翁和尚)의 사리(舍利), 야보전 앞에 53 불을 모신 철탑(鐵塔)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하여 강탈당하고 말았다.

이 절 부근에는 경순왕비가 창건하였다는 전설을 간직한 돈도암(頓道庵)과 신라시대의 탑이 있는 신림암(神琳庵), 서산대사가 창건하였던 백화암지(白華庵址)가 있다. 또 절 안의 수충영각(酬忠影閣)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하여 고려 말의 명승 지공(指空)과 나옹의 진영(眞影)을 봉안하였던 곳이기도 하다.⁵⁾

일제강점기 31본산이 지정된 때에는 유점사(楡岾寺)의 말사였다.

정양사(正陽寺)

600년(무왕 1)에 백제의 고승 관륵(觀勒)과 강운(降雲)이 창건하였고, 661년(문무왕 1)에 원효(元曉)가 중창하였다.

이 절이 사세(寺勢)를 크게 넓힌 것은 고려 태조의 중창에서 비롯된다. 고려 태조가 이 절에 올라왔을 때 법기보살(法起菩薩)이 현신(現身)하여 석상(石上)에서 방광[放光:빛이 남]을 하였는데, 이 일을 잊지 못하여 빛이 나타났던 바위에 정례(頂禮)하고 절을 중창했다고 한다. 지금도 법기보살이 현신한 곳을 방광대(放光臺)라고 하고, 태조가 정례한 곳을 배점(拜岾)이라고 한다. 한편, 금강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산마루에 햇별이 가장 잘 쬔 양지바른 곳에 놓였다'고 하여

5)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표훈사(表訓))

정양사라고 이름 붙여졌다고도 한다. 1425년(세종 7) 5월에 교종(敎宗)에 소속시키고 전지(田地) 150결(結)을 주었다.

이 절의 본전은 반야전(般若殿)이며, 표훈사와 마찬가지로 법기보살을 주존불로 모시고 있다. 주존불 아래에는 대장경(大藏經)을 봉안하고 있는데, 언제의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 맞은편에는 대들보가 없는 6각형의 전당(殿堂) 약사전(藥師殿)이 있는데, 벽화는 오도자(吳道子)의 필화(筆畵)를 모사한 것이며, 중앙에 모신 석조약사여래상은 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있다. 탑은 2층 기단에 3층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신라탑의 양식이며, 석등은 그보다 조금 연대가 떨어지는 양식이다. 이 탑은 탑거리, 신림사(神琳寺)의 탑과 함께 금강삼고탑(金剛三古塔)이라고 불린다.

절 경내의 오른쪽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있는데, 혈성루(歇惺樓)라고 한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다고 하며, 금강산에서 가장 유명한 누각이다.⁶⁾

일제강점기 31본산이 지정된 때에는 유점사(楡岾寺)의 말사였다. 이 사찰도 한국전쟁 시 혈성루, 명부전, 나한전 등의 부속건물들이 소실됐다. 사찰의 중심건물은 반야전이며, 반야전 앞의 약사전은 6각형지붕건물의 특이한 구조물이다. 또 절 경내오른편의 갈성루 위치가 금강산 일 만이천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다.

화암사(禾岩寺)

769년(혜공왕 5)진표(眞表)가 창건하여 이름을 금강산 화엄사(華嚴寺)라고 하였다.

사적기에 의하면, 당시 금강산으로 들어온 진표는 금강산의 동쪽에 발연사(鉢淵寺)를, 서쪽에 장안사(長安寺)를, 남쪽에 이 절을 각각

6)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양사(正陽寺))

창건했는데, 화엄사라고 한 까닭은 이곳에서《화엄경》을 강하여 많은 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화엄경》을 배운 제자 100명 가운데 31명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으며, 나머지 69인은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았다고 한다. 또 진표는 이곳에서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그 자리에 지장암(地藏庵)을 창건하여 이 절의 부속 암자로 삼았다고 한다. 그 뒤 941년(태조 24) 월영암(月影庵)을 창건했으며, 1401년(태종 1) 지장암을 동쪽으로 옮기고 미타암(彌陀庵)으로 이름을 바꿨다.

1623년(인조 1) 불에 타자 1625년 중건하였다. 1628년에는 광명(廣明)이 지장보살상을 조성했으며, 안양암(安養庵)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1635년 산불이 일어나 다시 불탔다. 이에 동쪽 20리 지점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1644년(인조 22)에야 옛터에 중건하였다. 1662년(현종 3)에도 화재가 있어 중건하였고, 1716년(숙종 42)에는 산적들이 불태워 버렸다.

이듬해 승려들은 동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무릉도(武陵島)에 초옥을 짓고 거주하다가, 1721년(경종 1) 옛 절터로 돌아와 중건하였으며, 해성(海城)은 안양암을 중수하였다.

1760년(영조 36) 대웅전과 향각(香閣), 승당이 불타자 승려들이 협력하여 이듬해 승당을 세웠고, 1762년에 대웅전과 향각을 중건하였다.

1794년(정조 18)에는 화성 도한(華城 道閑)이 약사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주야 21일 동안 올렸는데, 기도가 끝나자 방광(放光)이 뻗쳐 그 빛이 궁궐의 뜰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정조는 제조상궁(提調尙宮) 최(崔)씨를 이 절에 파견하여 도한을 궁궐로 데려 오도록 하여 경위를 듣고 크게 감격하여 이 절을 가순궁(嘉順宮)의 원당으로 삼았으며, 묘사채 2동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1796년에는 미타암의 화응전(華應殿)을 정조의 원당으로 정하여 관음보살상과 정조의 친필 병풍 6폭, 연(輦)을 하사하고, 절의 사방금표(四方禁標)를 정해 주었다. 이로써 이 절은 창건 이래 가장 큰 사역(寺域)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60년(철종 11) 산불로 암자까지 모조리 소실했으며, 춘담(春潭)이 중심이 되어 중건에 착수하였다.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시주를 모으고 왕실의 도움을 받아 화엄사와 안양암을 중건

했으며, 수봉(穗峰)은 탕화를 조성했다."

1864년(고종 1) 다시 산불로 소실하자 불타지 않은 승당에 임시 법당을 마련하고 지냈으며, 1868년에 지장탱화와 신중탱화, 현왕탱화를 조성 봉안하였다." 그리고 화재를 면하고자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남쪽의 화기를 지닌 수암(秀巖)과 북쪽의 코끼리바위의 맥이 상충하는 자리를 피하여 100m 아래에 절을 짓기로 하였다.

1872년 수봉이 새 터에 법당과 영각(影閣), 누각, 요사채를 중건했으며, 1882년(고종 19) 자허(籽虛)와 선월(船月)이 철원 장구사(長久寺)에서 아미타여래상과 약사여래상을 모셔와 봉안하였다. 1893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안양암이 붕괴되었고, 1894년 축성(竺星)이 중수했으며, 1909년 영운(影雲)이 안양암에 칠성각을 건립하였다.

1912년에는 사찰령(寺刹令)에 따라 전국 31본산 중 건봉사(乾鳳寺)의 말사가 된 뒤부터 화암사라는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다. 1915년 9월 다시 불타서 1917년 중건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때 크게 파손되어 건물 1동만 남게 되었다. 1953년 휴전 뒤에 건봉사 극락암에 있던 한 비구니가 정착하여 머물렀다. 1986년에는 주지로 부임한 양설(良說)이 중창하여 다시 큰 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명부전, 삼성각, 인법당(因法堂), 금강루(金剛樓), 일주문, 미타암(彌陀庵), 요사채 등이 있다. 특별한 문화재는 없다.

수암에 얽힌 설화가 전한다. 수암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끼니 때마다 그 구멍에 지팡이를 넣고 세 번 흔들면 2인분의 쌀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욕심 많은 한 객승이 이를 보고 '3번 흔들어 2인분의 쌀이 나오면, 300번 흔들면 200인분의 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마구 흔들었다.

그러나 구멍에서는 피가 나왔고, 이후 쌀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7)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神興寺)의 말사이다.

7)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화암사(禾巖寺))

발연사(鉢淵寺)

발연암(鉢淵庵)·발연수(鉢淵藪)라고도 한다.

신라시대 승려 진표(眞表)가 지극한 참회를 통하여 미륵보살로부터 친히 간자(簡子)를 전수받았던 곳으로, 770년(혜공왕 6)에 진표가 창건하였다.

미륵봉 동쪽의 험준한 계곡 아래 발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이는 주위의 바위모양이 발우(鉢盂)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절 이름도 이에 기인한다.

1657년(효종 8)에 화재로 불타버린 뒤 1659년에 승찬(勝燦)이 중건하였다. 그 뒤 이 절의 퇴락에 관한 설화가 전한다.

절이 한참 융성한 때인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였다. 절에서 귀찮다고 박대를 하면서 쫓아버리자 노인은 다음날 지관의 행색을 하고서 다시 절을 찾았다. 그리고 절 앞 계곡에 다리가 있었더라면 더욱 융성해질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는 아쉽다는 듯이 절을 떠났다. 이에 승려들은 곧 다리를 만들어 홍교(虹橋)라고 이름지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자꾸 절의 재산이 줄고 머지않아 폐사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알아보니, 절 건너편에 고양이 모습의 바위가 있는데 전에는 시냇물에 막혀서 오고갈 수 없었으나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게 되어 절이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다리를 다시 허물었으나 그때마다 시냇물에 떠 내려 온 바위들이 저절로 모여서 다리 같은 형상을 만들었으며, 절은 폐사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북명(北溟)이라는 결승이 이 절을 중창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⁸⁾

8)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발연사(鉢淵寺))

2021. 제9호 고성문화



향토 문화, 예술 지상 갤러리



江原道高城文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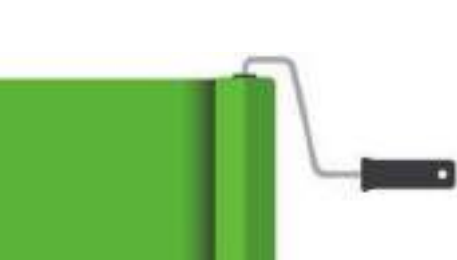
행토 문화 · 예술 지상 갤러리



【제39회 수성문화제 체험부스 / 2021.09. 15~16】



【제39회 수성문화제 체험부스 / 2021.09. 15~16】



【제39회 수성문화제 사진전(고성군사진동우회) / 2021.09. 15~16】



【초계리 문화마을 예술작품 전시회 / 2021.09.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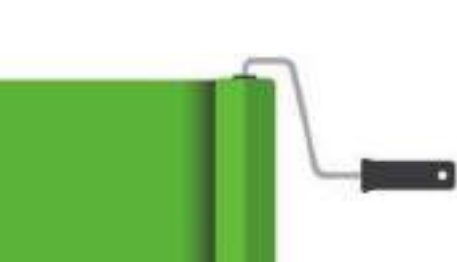
행토 문화 · 예술 지상 갤러리



【제39회 수성문화제 체험부스 / 2021.09.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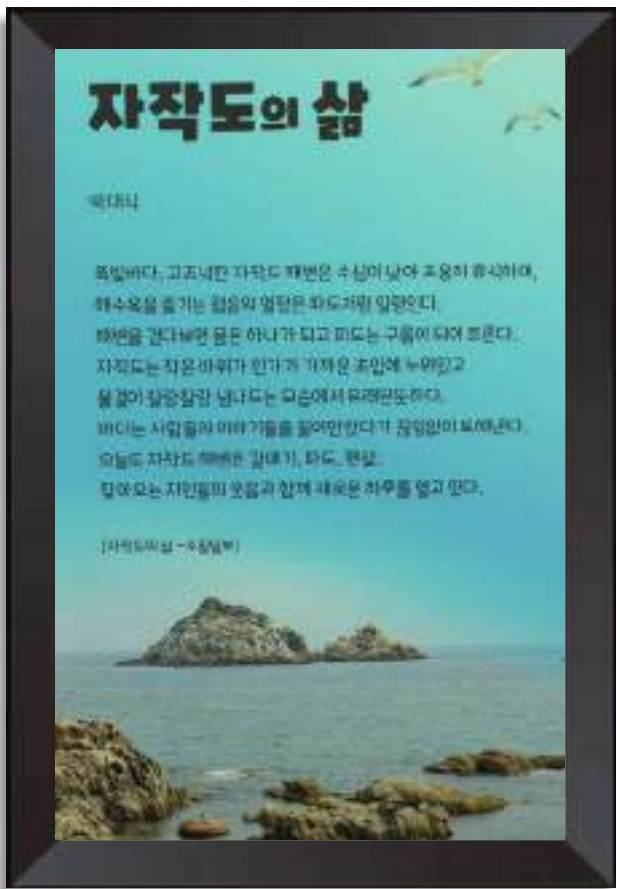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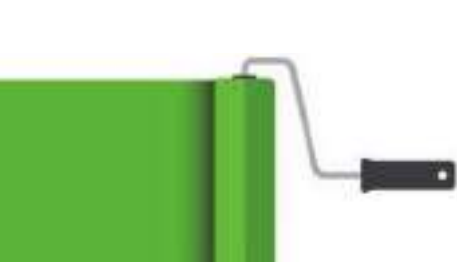
【제39회 수성문화제 체험부스 / 2021.09.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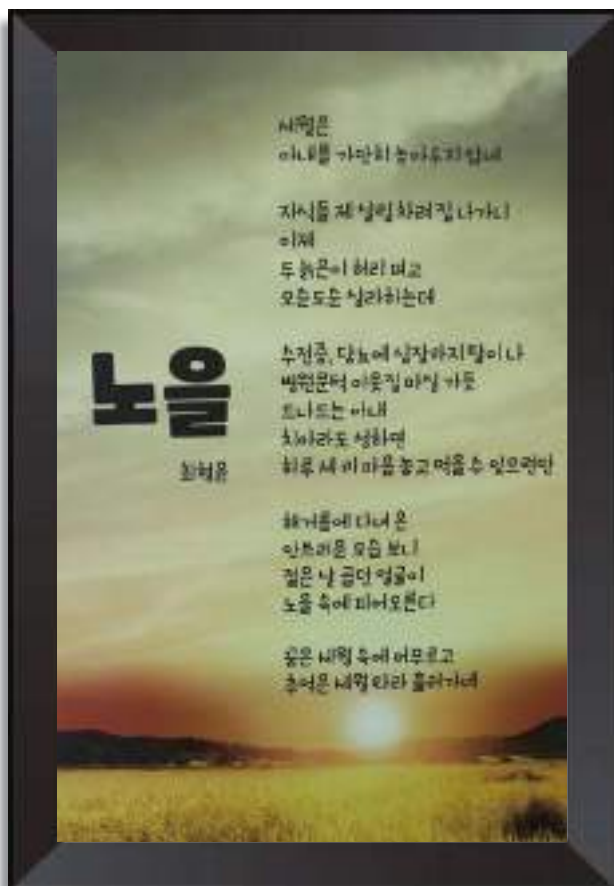
【청어람-김용경作 / 410X40X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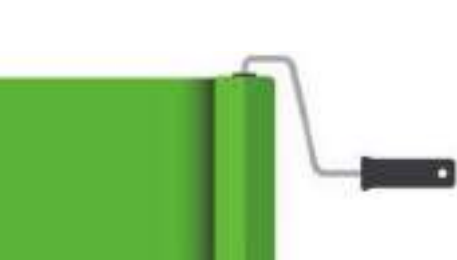
【날마다 행복-송태현作 / 550X250X30】



【박대식 - 자작도의 삶】



【최혜윤 - 노을】



【고성문화원 서양화 전시(수성문화제) / 2021.09. 15~16】



【고성문화원 서양화 전시(수성문화제) / 2021.09. 15~16】

2021. 제9호 고성문화



문화원 소개



江原道高城文化院



고성문화원 연혁



년월일	연혁내용
1981. 01. 06	설치허가 490호 (문화공보부장관) 대표자 : 함병철 (초대회장) 이 사 : 함병철, 이백규, 김경명, 이귀림, 이복수, 최달구, 함정균, 함형운.
1984. 01. 06	사무국장 : 함형운 임명
1985. 03. 01	고성군청 별관 2층 증축으로 사무실 이전
1987. 01. 06	고성문화의 집 1층으로 사무실 이전
1988. 01. 06	문화원장 : 함병철 유임
1988. 01. 06	사무국장 : 최형기 임명
1988. 12. 20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2. 06. 22	함희조 문화원장 취임(1996. 6. 21까지)
1994. 07. 05	부원장 : 이병찬, 심규섭(취임)
1994. 08. 09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인설립인가
1996. 06. 28	임원취임 승인 (원장 : 함희조, 부원장 : 권오진, 이병찬) 유임이사 : 이성식 신임이사 : 김대현, 윤용수, 권오훈, 김영태, 김성호, 조정현
1996. 08. 10	간사 최윤정 채용(현, 과장)
1998. 06. 20	문화원장 함희조 사임 권오진 부원장 직무대리 임명
1998. 07. 13	이병찬 문화원장 취임
2001. 12. 30	사무국장 최형기 퇴임
2002. 01. 01	사무국장 남병욱 임명(공개채용)
2004. 04. 01	고성문화원 정관변경(제14조 임기 제향)
2004. 06. 29	제7대 황연인 문화원장 취임
2006. 07. 01	사무국장 박명재(공채)



고성문화원 연혁



년월일	연혁내용
2008. 06. 29	제8대 황연인 문화원장 유임
2012. 08. 29	제9대 이진영 문화원장 취임
2014. 05. 20	사무국장 박명재 퇴임
2014. 07. 01	사무국장 김장민 채용
2016. 06. 29	제10대 주기창 문화원장 취임
2018. 02.	팀장(채용) : 김미선
2018. 04.	주임(채용) : 박동환
2020. 06. 29	제11대 주기창 문화원장 연임
2020. 09.	주임 박동환 퇴사
2021. 05.	주임(채용) : 곽은선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 문화원장 소개



직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원장	주기창	간성읍 수성로 84번지	010-3563-3154
부원장	남영자	간성읍 교촌길 146-18	010-2112-1604
부원장	윤영락	거진읍 거탄진로 135 메리츠화재	010-5366-3200
이사	김성희	거진읍 태봉길 3	010-5374-3810
이사	김진호	현내면 모정 1길 11	010-3364-6215
이사	김철수	토성면 인흥 3길 7-10	010-5115-1452
이사	김춘만	죽왕면 동해대로 6185	010-8761-9516
이사	문명호	거진읍 거탄진로 138	010-4524-1172
이사	박세진	거진읍 거탄진로 159-1	010-2284-3798
이사	어명호	죽왕면 삼포민박촌 2길 31 (전원가든)	010-5375-9030
이사	우광문	간성읍 간성로 69-1(2층) 한국엔지니어링	010-7281-3593
이사	윤선준	간성읍 간성북로 7번길 49	010-5377-2171
이사	윤택규	간성읍 꽃내마루길 20-20	010-2371-2303
이사	이영일	거진읍 거진길 40	010-3891-6819
이사	이용하	현내면 대진3길 23-12번지 (대진23-12)	010-9042-2669
이사	이철균	간성읍 간성로 89-13	010-4211-2286
이사	이춘우	토성면 천진리 148-1	010-8795-2421
이사	이학봉	현내면 한나루로 140-1	010-6372-0527
이사	장정희	남천마루 2길 스위트M	010-5364-5193
이사	전연표	간성읍 간성시장 2길 11	010-5365-4433
이사	전제동	간성읍 신안 3리 2반	010-6378-2528
이사	최봉림	간성읍 신안 282	010-5374-5497
이사	최세현	거진읍 대대 2리 1반	010-6370-2653
이사	한선제	죽왕면 삼포리 239-36	010-5363-0023
이사	한창영	남천마루 2길 스위트M	010-5373-2156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 문화원장 소개



직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이사	함상옥	간성읍 신안리 314-1	010-5274-2025
이사	홍순흥	간성읍 간성로 89-7	010-2029-2126
이사	홍종철	거진읍 거진길 28-1	010-5379-2720
이사	황광을	간성읍 금수리 1길 15-1	010-2023-2091
이사	황재철	간성읍 금수리 88	010-6271-3300
감사	이선국	간성읍 건봉사로 391-38	010-6605-2425
감사	이성수	간성읍 간성로 61-5	010-7149-2760

◆◆◆◆ 역대 문화원장 연혁 ◆◆◆◆

- 제 1, 2 대 : 함병철 원장 (1984 ~ 1992)
- 제 3, 4 대 : 함희조 원장 (1992 ~ 1998)
- 제 5, 6 대 : 이병찬 원장 (1998 ~ 2004)
- 제 7, 8 대 : 황연인 원장 (2004 ~ 2012)
- 제 9 대 : 이진영 원장 (2012 ~ 2016)
- 제 10, 11대 : 주기창 원장 (2016~)



2021. 제9호 고성문화



회원가입



江原道高城文化院

◆◆◆◆ 고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

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며 지역문화교류, 사회교육 등 군민의 문화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귀하를 고성문화원의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문화원이 하는 일?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문화원의 회원이 되시면?

1. 정기 간행물 “고성문화”와 본원에서 발간하는 각종책자를 받아 볼 수가 있음.
2.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비디오(영상), CD 등) 대출이 가능함.
4. 회원 자격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문화원 운영 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5. 기타 의견 제시 등.

강원도고성문화원

고성문화(高城文化) 제9호(2021년)

- 인쇄일 : 2021. 12. 22
 - 발행일 : 2021. 12. 28
 - 발행인 : 주기창(고성문화원장)
 - 기 획 : 김장민(고성문화원사무국장)
 - 편집인 : 최선희
 - 연락처 : 033) 681-2922
 - 팩 스 : 033) 681-2928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

【비매품】 이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江原道
高城文化院



www.goseongcul.com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TEL : (033) 681 - 2922